

공공기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공공기관 부채 문제의 현황과 해결방안

2013. 1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개 요

- 주 제 : 공공기관 부채 문제의 현황과 해결방안
- 일 시 : 2013. 12. 10(화) 14:30 ~ 17:00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 주 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후 원 :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 진행순서

14:00~14:30 등 록

14:30~14:40 개회식

- 개회사 :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 축 사 :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

14:40~16:40 공공기관 부채 문제의 현황과 해결방안

- 사회자 : 송대희/前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 발표자 : 「공공기관 부채정보 공개 의의와 주요 내용」
최광해/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공공기관 부채의 원인과 대책」
박 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허경선/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지방공기업 부채증가 원인」
정정순/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
- 토론자 : 김성태/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박정수/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백승정/한국전력공사 기획본부장
서정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장
안현실/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정인억/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사장

16:40~17:00 객석토론 및 종합정리

17:00~ 폐 회

총 목 차



- 공공기관 부채정보 공개 의의와 주요 내용 1
최광해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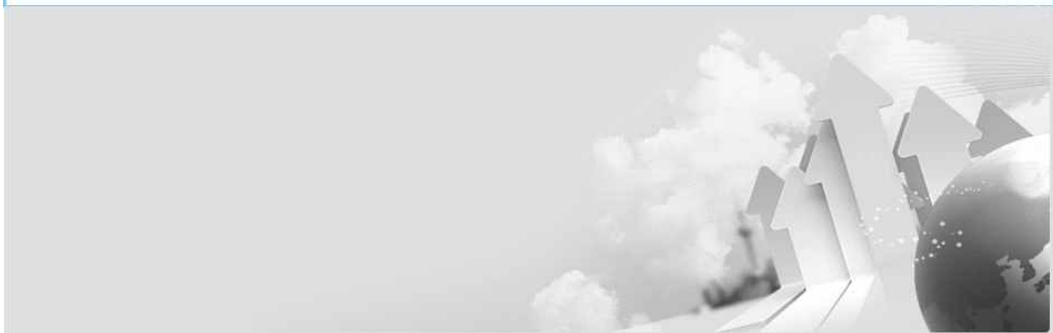
- 공공기관 부채의 원인과 대책 11
박 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허경선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지방공기업 부채증가 원인 47
정정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



공공기관 부채정보 공개 의의와 주요 내용

최광해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목 차

I . 추진배경과 의의	5
II . 공공기관 부채 정보 공개 확대 주요내용	6
1. 공공기관 부채 정보 공개 확대 항목	6
2. 주요 12개 기관 부채정보 공개 주요 내용 ...	7

I. 추진 배경과 의의

- 공공기관 부채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부채정보에 대한 국민 수요가 높아졌으나, 그 동안 부채 공개 정보가 제한적
 - 공공기관 부채가 '12년말 493조원으로 '07년말 대비 244조원 증가하고, '11년부터 국가채무 규모를 능가하면서 부채추이, 부채증가원인 등 부채정보에 대한 수요 급증
 - * 공공기관 부채규모(조원): ('07)249.2 ('08)290.0 ('09)336.8 ('10)397.0 ('11)459.0 ('12)493.3
 - 그러나,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 공공기관 부채정보가 제한적
 - 최근 5년간의 정보만 공개되고 있어 시계열 분석이 어려워 현 상태를 추세적으로 진단하는 것이 쉽지 않음
 - 요약재무제표를 중심으로 공개되어 부채증가 원인 등을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 공공기관 부채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과 정부 3.0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 부채 정보공개 확대 추진
 -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와 추이, 증가속도, 발생원인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국민 누구나 이해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 강화
 - 공공기관 부채증가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제고

⇒ 금번 공공기관 부채 정보 공개 확대로 국민의 공공기관 부채 상시 모니터링 기능이 강화되고, 국민을 통한 상시적인 감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Ⅱ. 공공기관 부채정보 공개 확대 주요 내용

1. 공공기관 부채 정보 공개 확대 항목

□ 알리오상 공개 확대 내용

- (대상 기관) 부채 규모가 크거나 부채증가를 주도한 12개 기관
 - * LH, 한전, 가스, 석유, 광물, 석탄, 수공, 도공, 코레일, 철도시설, 예보, 장학재단
- (대상 기간) '97~'12년까지, 과거 15년
- (공개 항목) 부채규모 등 부채총량 정보, 금융부채 비중 등 부채성질별 정보, 주요재무비율, 부채관련 주요 사업 지표
 - (부채총량) 부채규모, 부채증감규모, 부채증가속도
 - (부채성질별) 금융부채 비중, 유동부채비중, 외화부채비중
 - (주요재무비율) 부채비율(부채/자본), 차입금의존도(차입금/자산)
 - (주요사업지표) 부채증가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부채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별 주요 사업 지표
 - * 예시: (한전) 전기요금 원가회수율 등 (가스공사) 국내설비투자규모 (LH) 신도시·택지개발 등 지구지정면적 등

□ 조세재정연구원 분석보고서 주요 내용

- 주요 12개 기관에 대해 알리오 공시 내용보다 상세한 자료를 알기쉽게 분석·공개
 - 기관별로 과거 15년간의 부채증가 추이, 이자보상배율 등 주요 재무비율을 보다 상세하게 분석·설명
 - 기관의 현금흐름 추정자료 등을 바탕으로 주요 사업별 부채 증가규모 추정정보를 제시하여 부채증가원인을 설명

2. 주요 12개 기관 부채 정보 공개 주요 내용

가 주요 12개 기관 부채 추이

□ 최근 5년간('07~'12년간) 부채 추이

- '12년말 주요 12개 기관 부채규모는 412조원으로 '07년 이후 226조원 증가, 전체 공공기관 부채증가규모의 92.3% 차지

< 공공기관 부채현황(조원) >

구분	'07(A)	'08	'09	'10	'11	'12(B)	증감(BA)
▪ 전체(295개)	249.2	290.0	336.8	397.0	459.0	493.3	244.2
▪ 주요 12개 기관	186.9	227.7	267.4	324.4	378.7	412.3	225.5
▪ 주요 12개 비중	75.0%	78.5%	79.4%	81.7%	82.5%	83.6%	92.3%

- LH, 한전(발전사포함)이 50조원이상 증가하면서 12개 기관 부채증가규모의 57% 수준을 차지하며,
 - 예보기금 부채 증가로 예금보험공사 부채도 14조원 증가

< 주요 12개 기관 최근 5년간 부채 현황(조원) >

구분	'07(A)	'08	'09	'10	'11	'12(B)	증감(BA)
SOC 분야	LH	66.9	85.8	109.2	121.5	130.6	71.2
	수공	1.6	2.0	3.0	8.1	12.6	12.2
	코레일	5.9	6.8	8.8	12.6	13.5	8.4
	도공	17.8	20.2	21.8	23.7	24.6	7.5
	철도시설공단	10.0	11.9	14.3	14.0	15.6	7.4
	소계	102.2	126.6	157.1	179.9	196.8	106.7
에너지 분야	한전(발전사포함)	38.7	46.9	51.8	72.2	82.7	56.4
	가스	8.7	17.9	17.8	22.3	28.0	23.5
	석유	3.7	5.5	8.5	15.9	20.8	14.3
	광물	0.4	0.5	0.9	1.5	1.8	1.9
	석탄	1.2	1.4	1.3	1.3	1.4	0.2
	소계	52.7	72.2	80.3	113.3	134.7	96.4
예보	31.9	29.0	28.7	27.2	40.5	45.9	14.0
장학재단	-	-	1.3	3.9	6.8	8.4	8.4
주요 12개 기관	186.9	227.7	267.4	324.4	378.7	412.3	225.5

□ 과거 15년간('97~'12년간) 부채 추이

- 주요 12개 기관 부채규모는 과거 15년간 353조원 증가
- 외환위기 등의 특수요인이 반영되어 있는 예보와 장학재단 제외시(10개기관) 과거 15년간 299조원 증가
 - * 예보상환기금은 '97년 외환위기시 공적자금 마련을 위한 예보채 발행으로 '02년 107조원으로 증가 → '12년 22.9조원으로 감소

< 과거 15년간 12개 기관 부채 현황(조원) >

구 분	'97(A)	'12(B)	증감(B-A)
▪ 자산	94.2	539.7	445.5
▪ 부채	59.4	412.3	352.9
- 예보, 장학재단 제외시	59.4	358.0	298.6

□ 과거 15년간('97~'12) 부채증가를 주도한 기관은 LH, 한전(발전사포함), 가스, 도공, 석유, 철도시설공단 등이며,

- LH 123조원, 한전(발전사포함) 65조원 증가하여 전체 증가 규모(353조원)의 53% 차지

< 주요 12개 기관 과거 15년간 부채 현황(조원) >

구 분	'97(A)	'12(B)	증감(B-A)	
SOC 분야	LH	14.7	138.1	123.4
	수공	1.7	13.8	12.1
	코레일	-	14.3	14.3
	도공	5.6	25.3	19.7
	철도시설공단	-	17.3	17.3
	소계	22.1	208.9	186.8
에너지 분야	한전(발전사포함)	30.3	95.1	64.7
	가스	3.8	32.3	28.5
	석유	2.1	18.0	15.9
	광물	0.3	2.4	2.1
	석탄	0.7	1.5	0.8
	소계	37.3	149.2	111.9
예보	-	45.9	45.9	
장학재단	-	8.4	8.4	
주요 12개 기관	59.4	412.3	352.9	

나

최근 5년간 주요사업별 부채증가규모

* 현금흐름 등을 통한 추정 자료로, 조세재정연구원 분석보고서상 자료

- '12년기준, 주요 12개 기관 부채(412조원)중 금융부채는 305조원이며, '07년 대비 169조원 증가

< 12개 기관 총부채 · 금융부채 현황(조원) >

구분	'07(A)	'08	'09	'10	'11	'12(B)	증감(B-A)
▪ 총부채	186.9	227.7	267.4	324.4	378.7	412.3	225.5
▪ 금융부채	136.0	168.7	203.4	234.5	270.8	305.2	169.2

- 최근 5년간 금융부채 증가(169조원)를 주도한 기관은 LH, 한전, 가스, 예보, 수공, 석유, 도공 등이며

* '07~'12년간 금융부채 증가규모(조원)

(LH)55.3 (한전,발전사포함)32.6 (가스)17.1 (예보)14.1 (수공)10.9 (석유)8.2 (장학재단)7.5 (도공)7.3 (철도시설)7.2 (코레일)7.0 (광물)1.7 (석탄)0.3

- 사업으로 보면, 보금자리 · 임대주택 · 4대강 등 SOC사업과 공공요금 억제 등 발전사업, 해외자원개발, 저축은행지원 등에 기인

< 최근 5년간 사업별 금융부채증가규모 추정(조원) >

전년대비 증감규모	'08	'09	'10	'11	'12	증감누적
< 전체 >	32.7	34.7	31.1	36.3	34.4	169.2
(예보)예금보험기금사업	△0.2	0.0	△0.1	10.4	12.0	22.1
(한전)전력공급사업	4.3	2.4	3.4	3.9	5.4	19.4
(LH)보금자리	1.4	1.9	4.0	4.3	3.5	15.0
(LH)신도시·택지	2.9	6.5	5.0	△0.4	0.3	14.3
(LH)주택임대	4.2	4.7	0.1	1.3	3.8	13.9
(가스)국내천연가스사업	6.8	0.4	0.5	2.3	1.2	11.3
(한전)발전자회사발전사업	2.8	2.1	0.4	3.1	2.8	11.2
(석유)해외자원개발사업	1.0	3.0	2.8	2.6	0.0	9.5
(도공)고속도로	2.8	1.6	1.6	1.0	0.6	7.6
(수공)4대강	-	0.1	3.1	3.1	0.8	7.1
(LH)기타사업	4.4	6.2	△2.4	△0.8	△0.8	6.6
(장학재단)일반학자금대출	-	1.3	1.7	1.2	0.4	4.5
(코레일)철도운송사업	0.9	0.4	1.0	0.7	1.0	4.1

다**부채 성질별 주요 내용**

* 10개 기관(예보, 장학재단 제외) 중심으로 분석

□ (금융부채 비중) '12년 기준 금융부채는 252.2조원으로 전체 부채의 70.4% 수준

○ 대내외 경제위기가 고조되었던 '98년이후, '08년 이후 일시적으로 상승하긴 하였으나, 이를 제외한 기간은 대체로 70% 수준

* 금융부채 비중(금융부채/부채, %): ('97)73.4 ('00)80.5 ('07)67.5 ('09)73.5 ('12)70.4

□ (단기금융부채 비중) '12년 기준 17.0%로, '07년까지 지속 감소하다가 '08년 이후 소폭 상승

* 단기금융부채 비중(단기/총금융부채, %): ('07)13.1 ('12)17.0

○ 대부분 기관이 20%내외 수준이나, 석탄공사만 예외적으로 70%대

* 기관별 단기금융부채비중('12년기준, %): (석탄공사)71.2 (가스) 28.4 (광물)24.6 (LH)18.0 (철도시설공단) 17.5 (석유) 15.5

□ (외화금융부채 비중) 12년 기준 16.8%로, '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속 감소하여 '09년 이후 외화부채 비중이 16%대 유지

* 외화금융부채(외화금융부채/금융부채) 비중: ('97)37.1 ('02)18.1 ('07)14.0 ('10)16.6 ('12)16.8

○ 대부분은 20%내외 수준이나, 해외자원개발 투자 등을 주로 수행하는 석유, 광물자원공사의 비중이 높은 편

* 기관별 외화금융부채비중('12년기준, %): (석유)97.3 (광물)79.3 (가스)31.8 (한전)23.0 (도로)17.0 (수자원)15.9 (철도)13.6 (LH)2.3

□ (차입금 의존도) '12년 기준 50.0%로, '05년 이후 차입금 규모와 자산대비 차입금 비율이 지속 상승

* 차입금의존도(금융부채/자산, %): ('05)35.0 ('07)37.0 ('12)50.0

○ 대부분 기관이 30%수준을 상회하며, 자본잠식상태인 석탄공사와 무자본법인인 철도시설공단이 높은 수준

* 기관별 차입금의존도('12년기준, %): (석탄공사)205.9 (철도시설공단) 77.3 (가스)59.9 (코레일)59.3 (LH)57.3 (광물)54.8 (수자원)47.4



공공기관 부채의 원인과 대책

박 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허경선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목 차

1. 공공기관 부채정보 공개의 목적과 범위 ..	15
2. 12개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와 추이	16
3. 부채의 증가속도	17
4. 부채의 성격	19
5. 부채의 발생 원인 분석	22
6. 부채의 상환능력	28
7. 부채대책	30
별첨: 12개 기관별 부채현황	34

1. 공공기관 부채정보 공개의 목적과 범위

- 공공기관 부채관리의 핵심은 정부 3.0에 입각, 상세 정보공개를 통한 국민감시 시스템의 강화
 - 공공기관의 부채의 현황과 추이, 증가 속도와 성격, 발생 원인에 대한 상세 정보와 분석내용을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할 필요
 - 현재의 공개정보에 비해 더 여러 해의 정보, 더욱 상세한 정보, 이해를 돕는 분석을 포함한 정보 제공이 필요
- (정보공개 대상과 범위) 본 연구는 부채규모, 증가속도, 자본잠식 상태 등을 기준으로 **12개 공공기관**을 우선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최근 15년간을 집중분석

12개 우선 분석대상 기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

* 두 기관은 업무수행이 부채를 자연 발생시키는 구조라 다른 기관의 부채와 차별화 되나 부채총량 공개원칙에 따라 우선 분석대상 기관에 선정 (분석시에는 별도처리)

- 위 12개 기관의 부채규모는 412.3조원으로 295개 전체 공공기관 부채 493.4조원의 **83.6%**이며 최근 5년간 금융부채 증가분의 **92.3%**를 차지 (2012년말 기준)

<표 1> 12개 공공기관의 부채 비중

(단위: 조원)

구분	2007년(K)	2008년(K)	2009년(K)	2010년(I)	2011년(I)	2012년(I)	5년간 증가폭
부채규모 상위 12개 기관 (비중)	186.9 (75.0%)	227.7 (78.5%)	267.4 (79.4%)	324.4 (81.7%)	378.7 (82.5%)	412.3 (83.6%)	225.5 (92.3%)
공공기관 전체	249.2	290.0	336.8	397.0	459.0	493.4	24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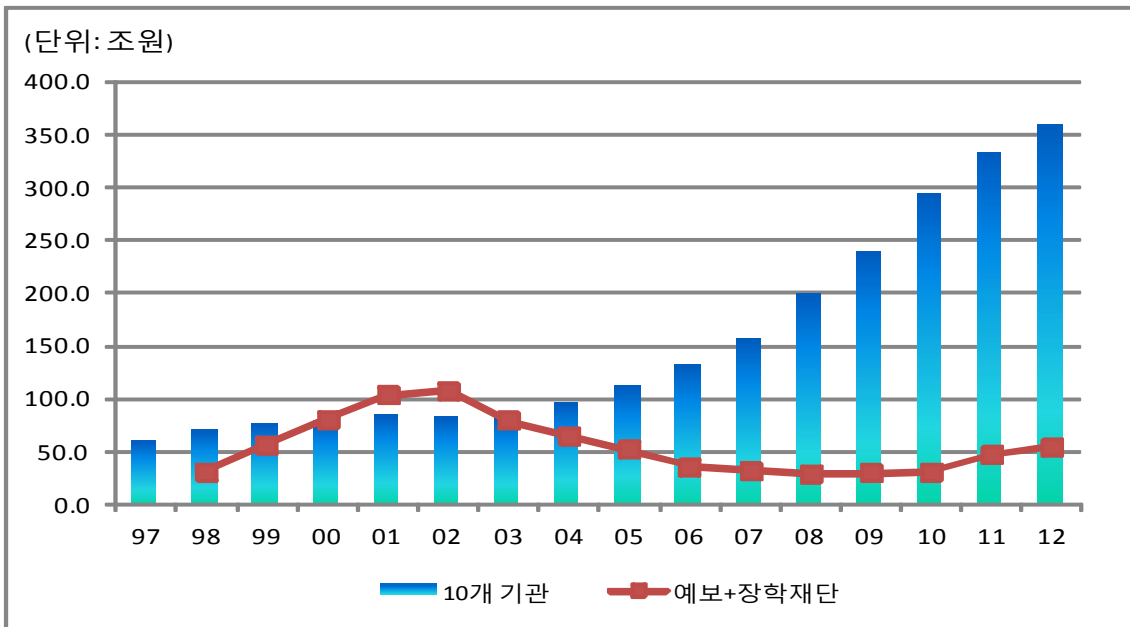
주: 1. (K)는 K-GAAP을 적용한 회계처리 수치이며, (I)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한 공기업의 경우 동 기준을 적용한 회계수치임

2. 12개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와 추이

□ 12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1997년 59.4조에서 2012년 412.3조로 15년간 352.9조 증가

- 예보와 장학재단을 제외한 10개 기관의 부채 규모는 15년간 298.7조 증가
 - 예보 부채는 2003년 이후 상환되고 있으나 국채전환으로 이어져 실질적인 국민부담 경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장기추세를 볼 때에는 별도 구분 필요
 - 장학재단은 2009년에 설립되었고 부채 성격이 다르므로 역시 별도 구분 필요

[그림 1] 과거 15년간 부채규모(예보와 장학재단 별도 구분)



□ 부채비율 : 예보와 장학재단을 제외한 10개 기관의 부채비율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차츰 낮아지다가 2006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12년 245.3%임

<표 2> 과거 15년간 10개 기관 부채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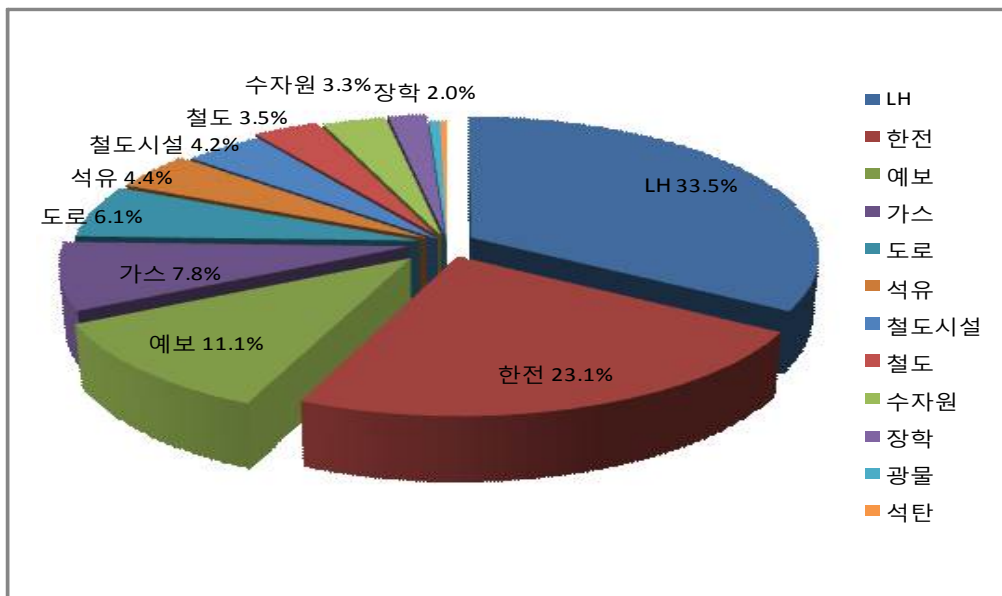
구분	1997년	2000년	2003년	2006년	2009년	2012년
부채	59.4	78.4	81.9	130.8	237.4	358.1
부채비율	170.7%	124.7%	103.4%	108.8%	171.8%	245.3%

주: 예보(무자본특수법인)와 장학재단(금융형)의 경우 기관 특성상 부채비율이 의미가 없으므로 분석 제외

□ 기관별 부채 규모: LH공사(33.5%, 138.1조)와 한국전력공사(23.1%, 95.1조)가 12개 기관 부채의 56.6%를 차지(2012년 기준)

- 예보(11.1%, 45.9조), 가스(7.8%, 32.3조), 도공(6.1%, 25.3조), 석유(4.4%, 18.0조), 철도시설(4.2%, 17.3조), 철도공사(3.5%, 14.3조), 수자원(3.3%, 13.8조), 장학재단(2.0%, 8.4조), 광물(0.6%, 2.4조), 석탄공사(0.4%, 1.5조) 순

[그림 2] 12개 기관별 부채 규모(비중) - 2012년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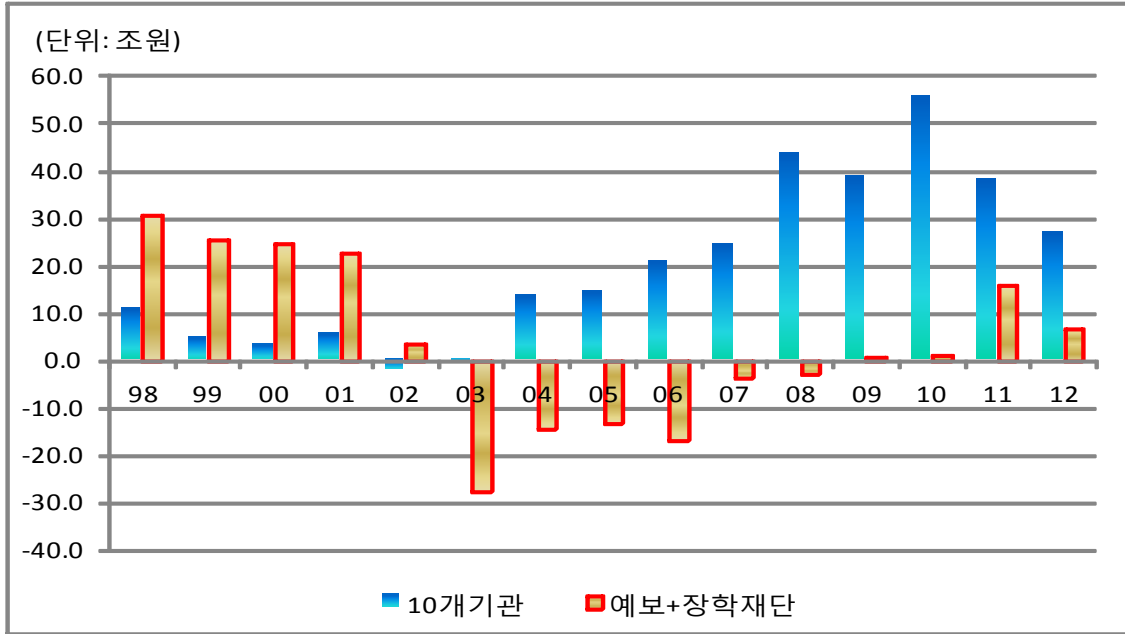


3. 부채의 증가속도

□ 증가속도: 2004년 이후 증가세가 시작하여 2008년에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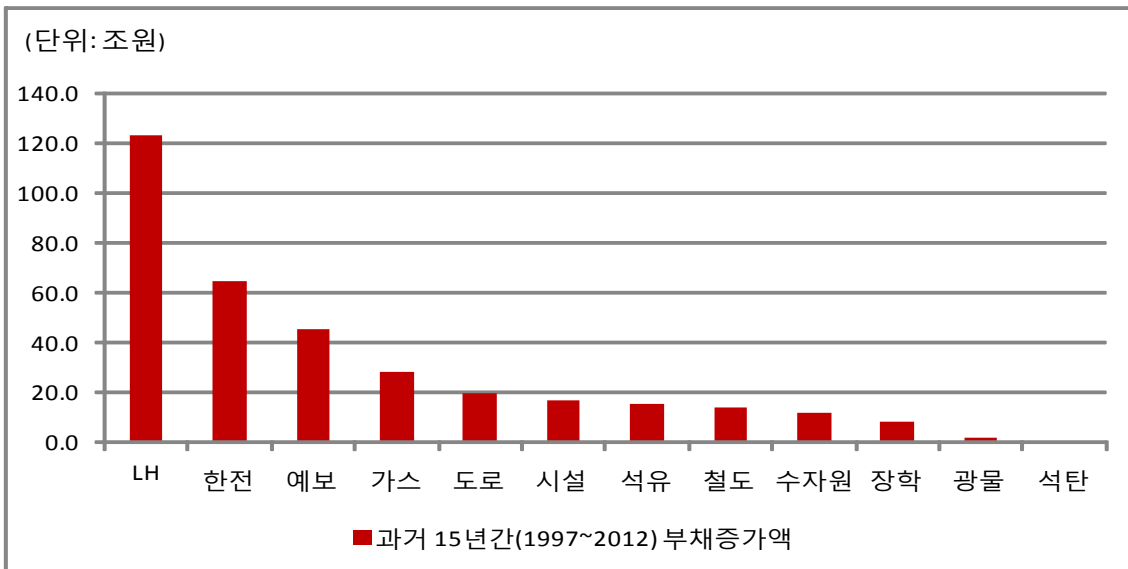
- 12개 기관의 2008~2012년 동안 증가액(225.5조)은 2012년말 부채규모(412.3조)의 54.7%
- 10개 기관(예보, 장학재단 제외): 1997~2003년까지 부채는 22.6조 증가(연평균 3.8조)하였으나, 2004~2012년 동안 부채는 276.2조(연평균 30.7조, 매년 17.8%) 증가
- 예보와 장학재단: 경제위기 직후(1998~2001년) 급증했으나 만기상환과 국채전환으로 감소하다가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부터 다시 증가

[그림 3] 12개 기관의 연도별 부채 증가액



- 기관별 증가폭: 과거 15년간(1997~2012년) 기관별로 부채증가액을 살펴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전력공사의 부채가 가장 크게 증가
 - 한국토지주택공사(123.4조), 한국전력공사(64.7조), 예금보험공사(45.9조), 한국가스공사(28.5조), 한국도로공사(19.7조), 한국철도시설공단(17.3조), 한국석유공사(15.9조), 한국철도공사(14.3조)의 순

[그림 4] 12개 기관의 과거 15년간 기관별 부채증가액(1997~2012년)



4. 부채의 성격

□ 예금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을 제외한 10개 기관에 대한 부채의 성격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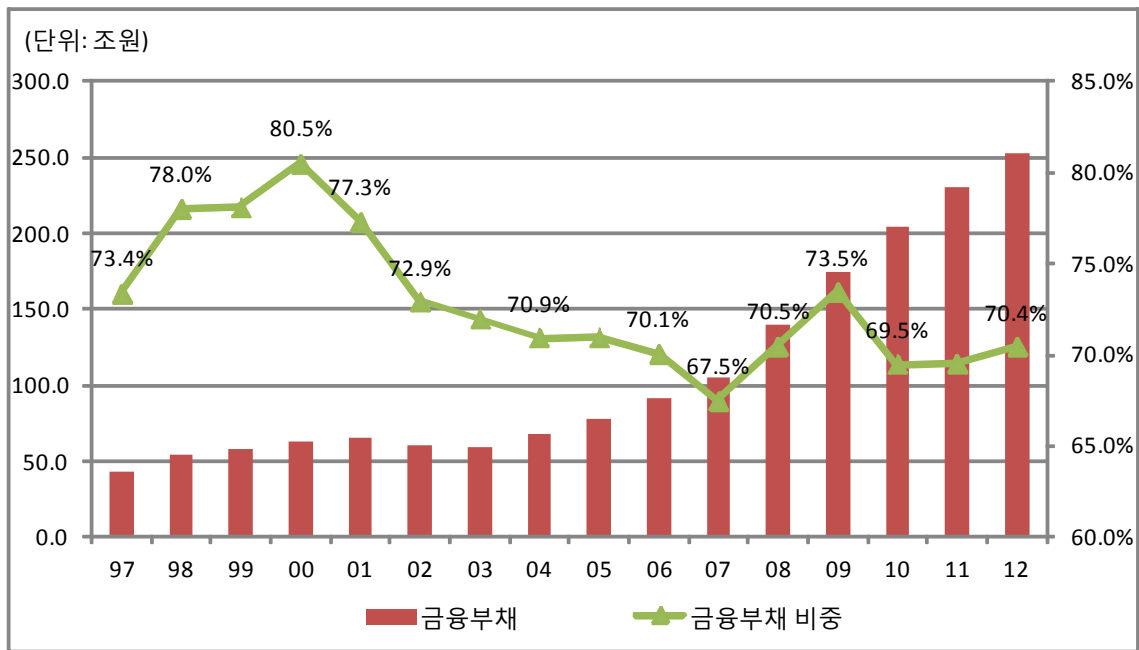
○ 예금보험공사와 장학재단의 경우 다른 10개 기관과는 업종이 상이하여 다른 기관과 동일한 재무비율로 분석함에 따른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제외

○ 10개 기관의 부채(358.1조)는 12개 기관 부채(412.3조원)의 86.8%이며 295개 전 공공기관 부채(493.4조)의 72.6%에 해당

□ 금융부채(이자부담 부채) : 10개 기관의 금융부채 비중은 70.4%(2012년 기준)

○ 금융부채의 비중은 경제위기를 겪은 1998년 이후 및 2008년 이후에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으나 이를 제외한 기간에는 대체로 70% 수준을 유지

[그림 5] 10개 기관의 연도별 부채구성 : 금융부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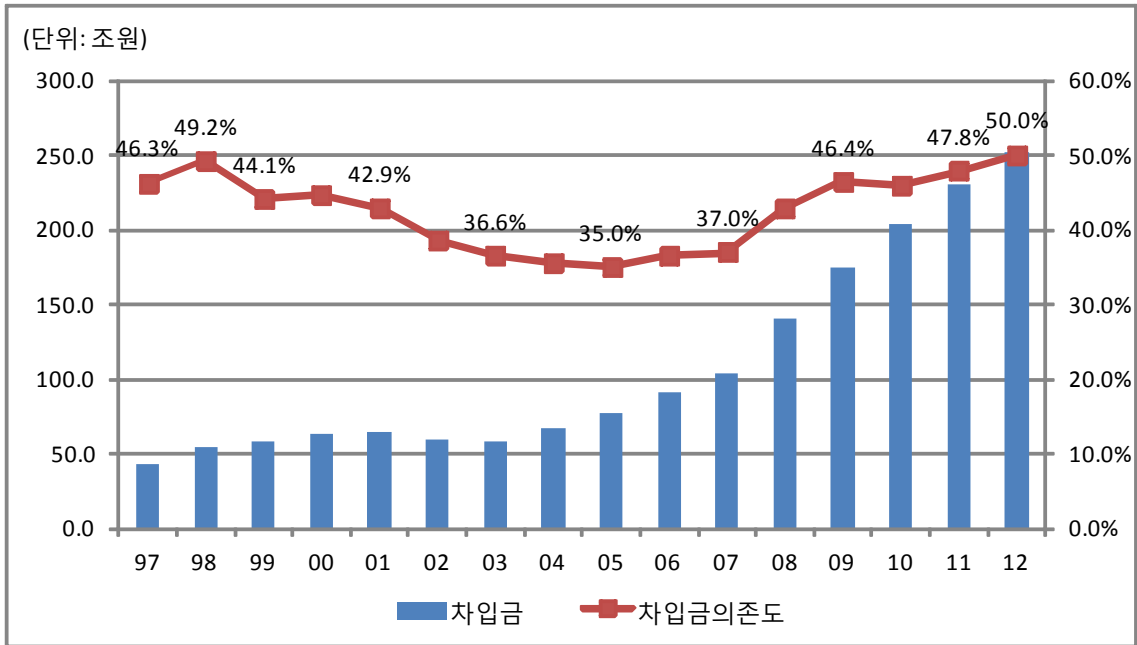


주: 금융부채는 부채로 인하여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로 사채, 차입금 등이 해당되며, 비금융부채는 매입채무, 미지급금, 총당부채 등 금융부채 이외의 부채임

□ 차입금 의존도(차입금/총자산): 10개 기관 모두가 30% 초과(평균 50.0%)
(차입금 의존도가 30%를 초과하는 경우 주의를 요함)

○ 2007년에는 30% 초과 기관이 7개였으나 2008년 이후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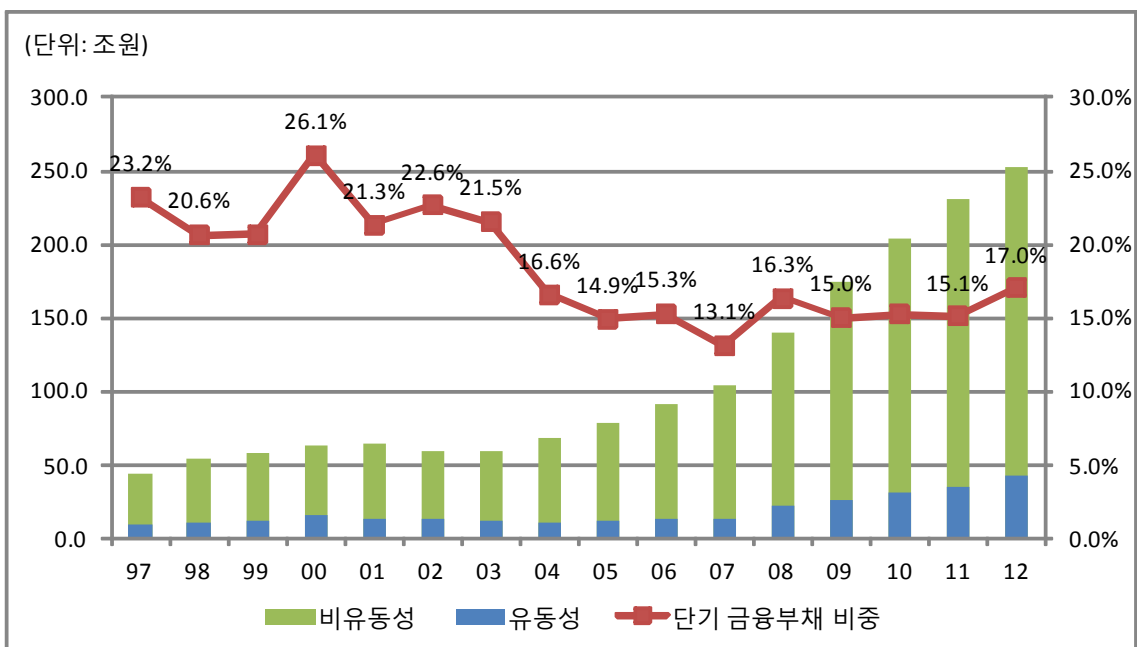
[그림 6] 10개 기관의 연도별 차입금 의존도



□ 단기 금융부채(만기 1년 이내의 부채) 비중: 2008년 이후 소폭 상승 추세

○ 단기 금융부채 비율이 특히 높은 기관은 대한석탄공사로서 금융부채 중 1년 이내 유동성 부채가 70%를 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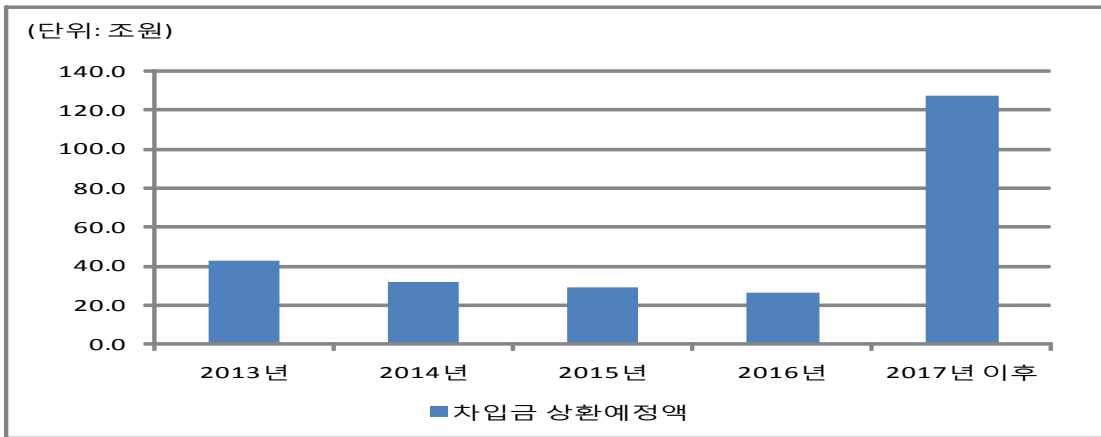
[그림 7] 10개 기관의 연도별 단기 금융부채 비중



□ 금융부채 상환계획: 2013년에 상환할 금융부채는 42.8조원(16.6%)이고 2017년 이후 127.3조원(49.3%)을 상환할 계획

○ 3년 이내 만기 도래 부채비율이 높은 기관은 석탄공사(99.9%), 광물공사(89.9%), 석유공사(51.7%), 가스공사(48.5%), 토지주택공사(40.4%)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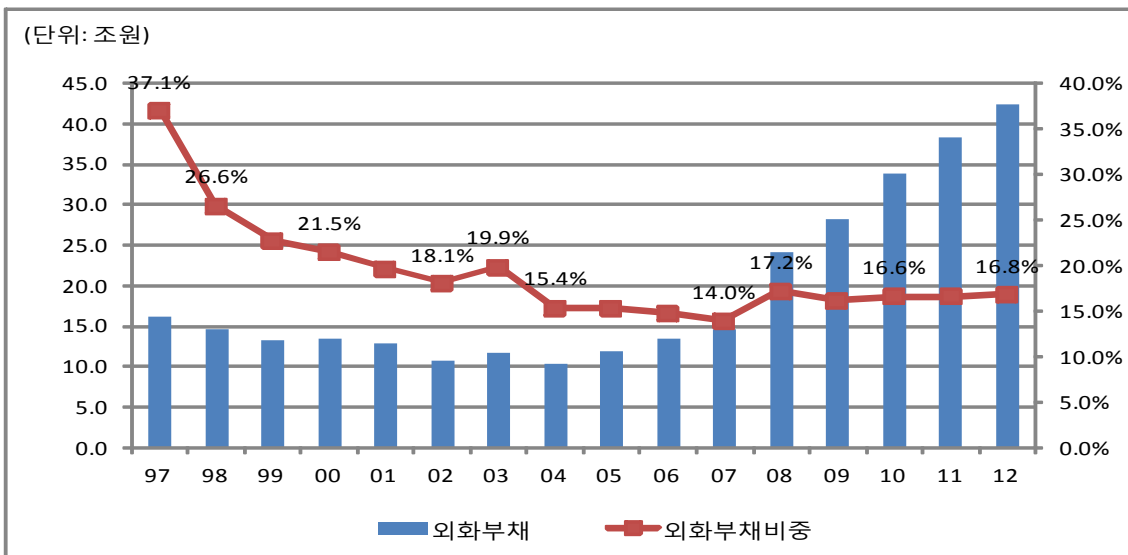
[그림 8] 10개 기관의 차입금 상환스케줄



□ 외화부채 비중: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08년 이후 증가하여 16%대를 유지

○ 동 비율이 특히 높은 기관은 석유공사(97.3%)와 광물자원공사(79.3%)

[그림 9] 10개 기관의 연도별 외화 금융부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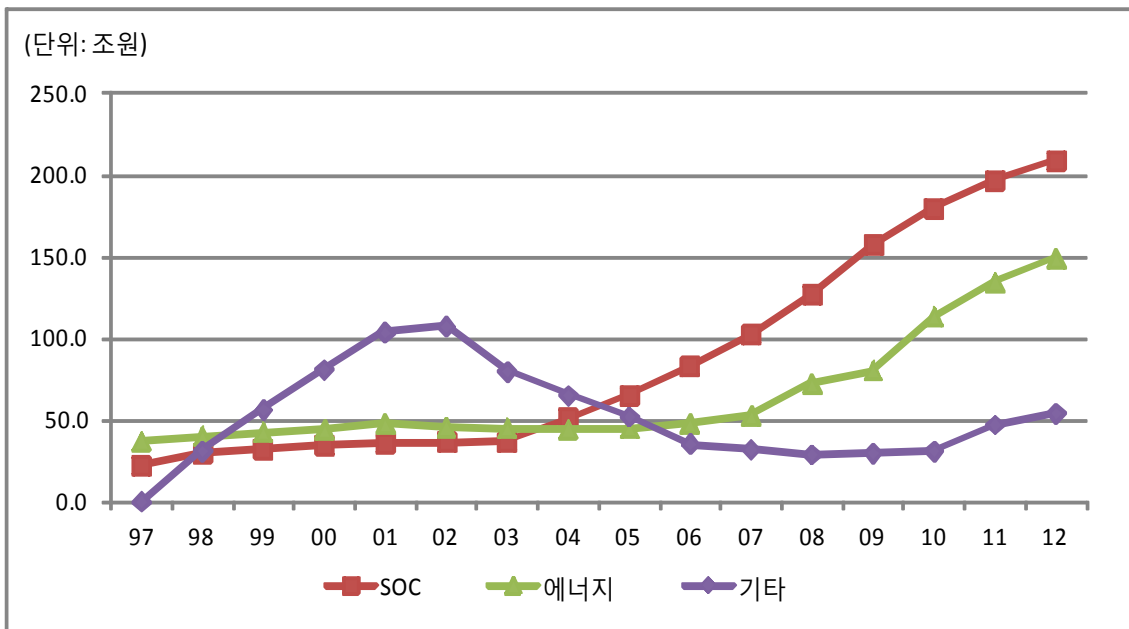
5. 부채의 발생 원인 분석

가. 기능단위별 원인분석

□ 12개 공공기관의 기능단위별(SOC, 에너지, 기타) 분류: SOC 공공기관은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부채가 증가한 반면 에너지 공공기관은 2008년 이후 급증

- SOC 공공기관: 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 에너지 공공기관: 한국전력,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 기타 기관: 예금보험공사, 장학재단

[그림 10] 10개 기관의 기능단위별 부채규모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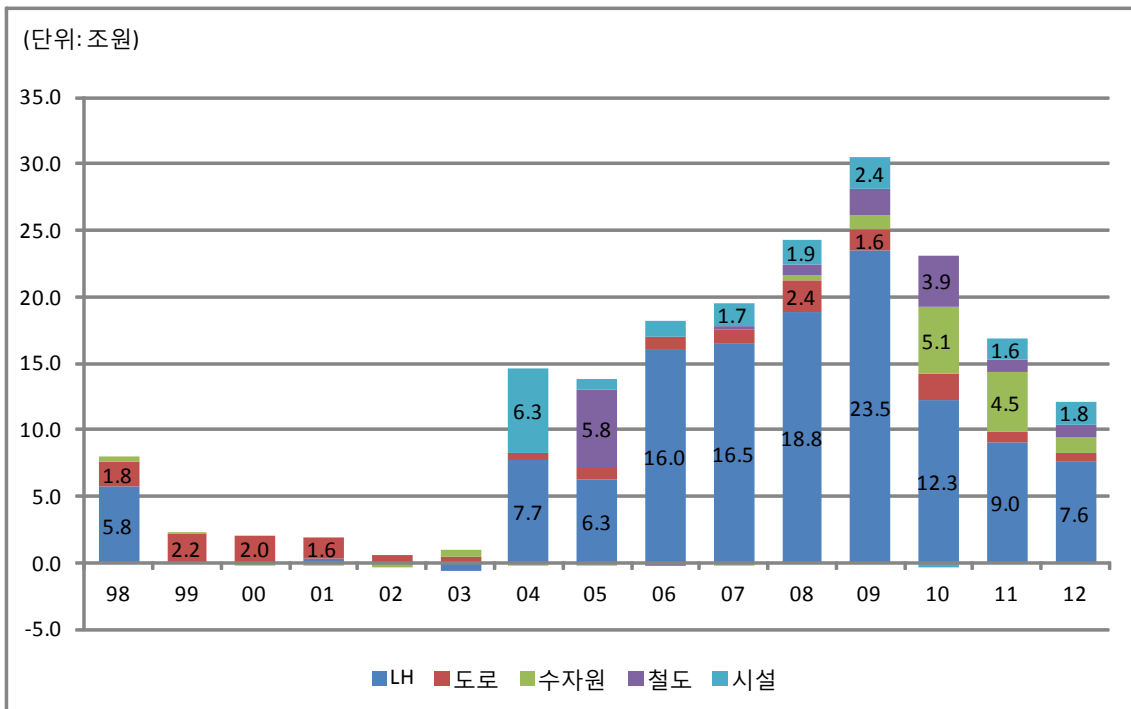


□ SOC 공공기관의 부채증가폭: 2004년부터 증가세 시작

-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개발, 국민임대주택 건설, 세종시 및 혁신도시개발로 2000년대 중반부터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보금자리주택 건설로 증가속도 가속
- 철도시설공단: 2004년 설립된 이후 경부고속철도 건설투자로 2007년까지 부채가 증가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건설투자 및 이자비용으로 부채 증가 지속

- **철도공사**: 2005년 출범한 이후 매년 4천억~7천억에 달하는 영업적자로 인해 부채 누증
- **한국수자원공사**: 2008년 이후 4대강 살리기 및 경인아라뱃길 사업 수행에 따른 부채증가액이 9.2조원
- **도로공사**: 1998년 이후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투자비를 확대한 결과 부채 급증

[그림 11] SOC공공기관의 연도별 부채증가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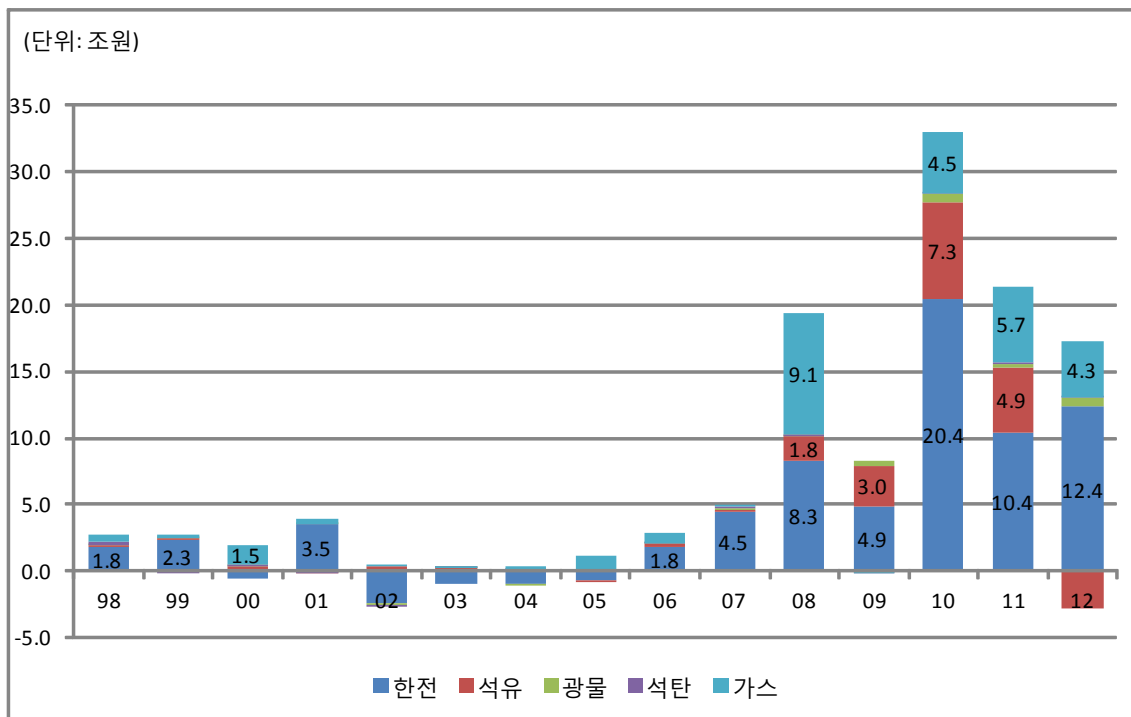


*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는 각각 2004년, 2005년에 설립

- **에너지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폭**: 2007년 이후 증가속도가 급격히 빨라짐
 - 2008년 이후 부채 증가는 한전(56.4조), 가스공사(23.5조), 석유공사(14.3조), 광물공사(1.9조), 석탄공사(0.2조) 순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한국전력공사**: 발전소와 송변전설비 등 설비투자비로 인한 부족자금과 전기요금 억제로 인한 영업적자가 주요 원인
 - 원가회수율: 77.7%('08년) → 91.5%('09) → 90.2%('10) → 87.4%('11) → 88.4%('12)
 - **한국석유공사**: 해외 석유개발기업의 합병 및 자산인수를 위한 외화 차입

- **한국가스공사:** 원료비 연동제 유보에 따른 미수금(5.5조), 해외자원개발 투자 확대(6.2조) 및 IFRS도입에 따른 추가 부채인식 등
- **한국광물자원공사:** 2008년 대한광업진흥공사에서 사명을 변경하고 자원개발 위한 직접 투자에 나서면서 외화 부채를 중심으로 부채 증가
- **대한석탄공사:** 민간기업 대비 높은 영업비용으로 인한 구조적인 적자구조로 지금은 완전자본잠식 상태

[그림 12] 에너지 공공기관의 연도별 부채증가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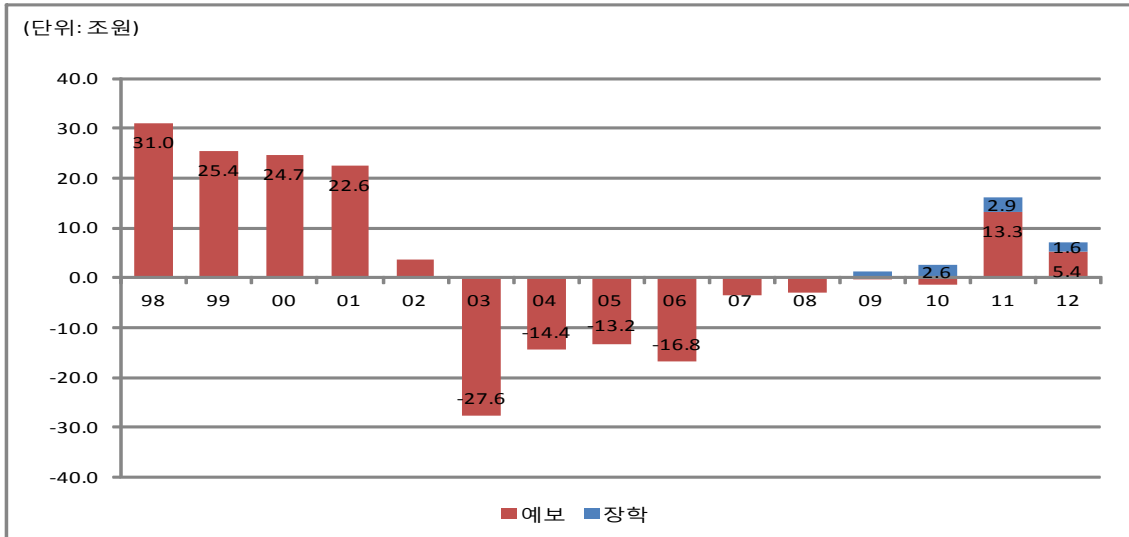


* 2012년 석유공사는 원화강세로 외화부채의 원화표시액이 감소함

□ 예보와 장학재단의 부채

- **예금보험공사:**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예보채 발행으로 부채가 급증하였으나 2007년까지 대부분 만기 도래하고 국가채무로 전환되어 부채 감소
- 2008~2012년에는 대규모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예보채가 추가 발행됨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부채가 증가
- **한국장학재단:** 2009년 설립되어 학자금 대출재원 위한 8.4조의 부채 발생

[그림 13] 예보와 장학재단의 연도별 부채증가액



나. 사업별 금융부채 증가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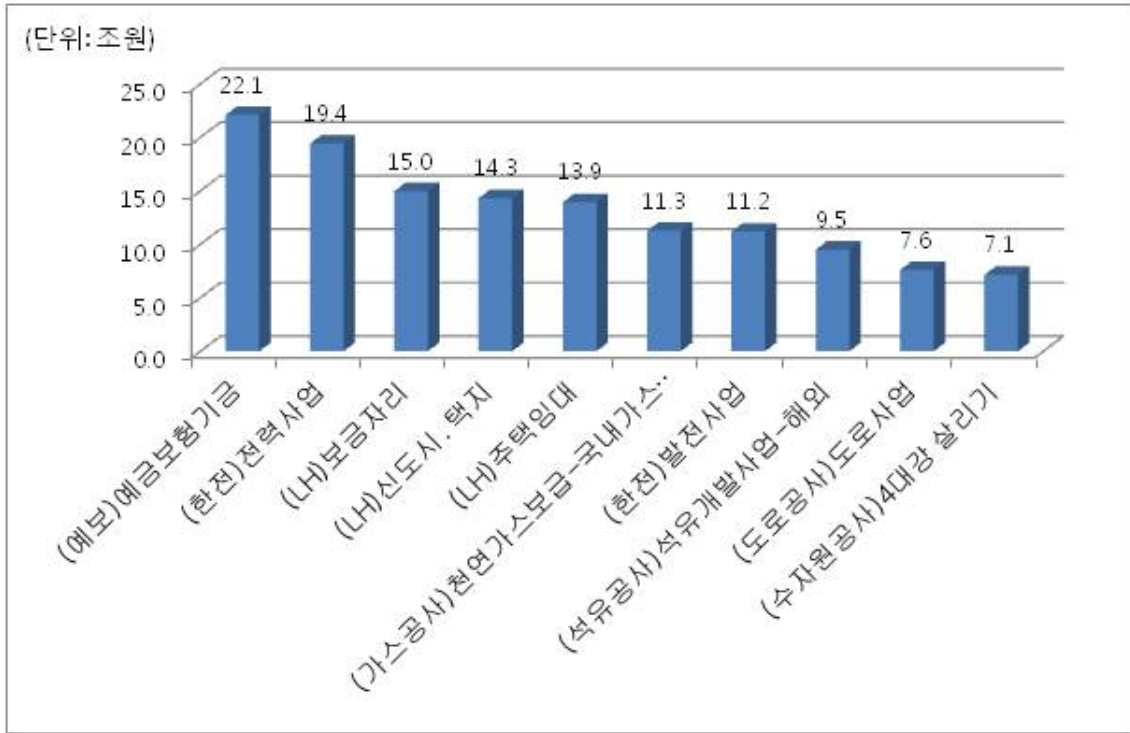
□ 주요 사업별 금융부채 증가액 추정

- 주요 사업별 자금흐름을 기준으로 차입금을 역산하는 방식으로 금융부채 증감액을 산출하였으며 사업간 공통비 등의 배분시 일정한 가정을 전제하여 도출
- 자금흐름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므로 K-IFRS도입시 회계기준 적용차이의 효과 등으로 인한 금융부채 순증감액은 반영되어 있지 않음
 - 이로 인해 회계상 금융부채 순증감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최근 5년간 12개 공공기관 금융부채 증가(167.3조원)의 대부분(78.5%)은 아래의 10개 사업에서 발생(131.4조원)

-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사업(22.1조원),
-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사업(19.4조원) 및 발전자회사의 발전사업(11.2조원)
- LH공사의 보금자리사업(15.0조원), 신도시·택지사업(14.3조), 주택임대사업(13.9조원)
- 가스공사의 국내천연가스 공급사업(11.3조원)
- 석유공사의 해외석유개발사업(9.5조)
- 도로공사의 도로사업(7.6조원)
- 수자원공사의 4대강살리기사업(7.1조)

[그림 14] 12개 기관의 최근 5년간 사업별 금융부채 발생액 상위 10개 사업('08~'12 합계액)



* 한전의 전력사업은 한국전력공사의 송·배전 관련 시설투자가 포함되며 한전의 발전사업은 한국수력원자력(주)를 포함한 한국전력공사의 6개 발전자회사들이 시행하는 신규 발전소 건설 및 보수가 포함되어 있음

<표 3> 12개 기관의 최근 5년간 사업별 금융부채 증가액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한국토지 주택공사	보금자리	13,505	18,693	39,905	42,880	34,663	149,646
	산업단지 등	-6,620	1,070	14,714	9,975	8,865	28,004
	주택임대	41,543	46,685	622	12,510	38,027	139,387
	세종·혁신도시	19,960	6,489	13,001	237	-12,135	27,552
	신도시·택지	29,285	64,626	50,371	-3,692	2,511	143,101
	기타	44,127	61,685	-24,223	-8,373	-7,586	65,630
	소계	141,800	199,248	94,390	53,537	64,345	553,320
한국 전력공사	전력사업	43,258	23,894	33,653	39,457	53,899	194,161
	발전사업	28,155	20,860	4,347	30,667	27,728	111,757
	해외사업	1,639	7,136	10,368	-17	15	19,141
	기타	2,050	89	7,208	-4,232	-1,421	3,694
	소계	75,102	51,979	55,576	65,875	80,221	328,753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한국 석유공사	석유개발사업 - 국내	640	-29	-396	-763	262	-286
	석유개발사업 - 해외	10,054	30,438	27,881	26,262	329	94,965
	민간 용자사업	2,293	-1,424	-	-	-	869
	비축사업	-	-	-	-	-	-
	기타 - 환율효과	-	-	-1,763	902	-6,968	-7,828
	소계	12,987	28,985	25,723	26,401	-6,377	87,720
한국 도로공사	도로사업	27,910	15,763	16,216	10,258	5,875	76,022
	부대사업	-762	-728	424	-1,043	-518	-2,627
	소계	27,148	15,035	16,640	9,215	5,357	73,395
한국광물 자원공사	투자사업	1,251	2,718	3,730	2,339	5,700	15,738
	용자사업	689	21	1,770	-2,952	-	-472
	소계	1,940	2,739	5,500	-613	5,700	15,266
대한 석탄공사	무연탄생산판매	2,028	-817	192	1,103	101	2,607
한국 가스공사	천연가스보급-국내 가스 공급	67,851	4,083	5,000	23,379	12,333	112,646
	천연가스보급-국내 도입용 해외가스전 지분투자	-1,280	-781	-673	13,228	19,568	30,061
	요금비규제-해외자원 개발	989	1,629	6,068	7,863	10,685	27,234
	기타 해외사업	462	151	-3	-68	105	646
	소계	68,022	5,081	10,392	44,401	42,691	170,587
한국 수자원 공사	수자원	1,306	-2,655	-3,688	-4,639	-4,423	-14,099
	단지	839	4,080	7,966	5,461	2,190	20,536
	경인아라뱃길	-	5,266	9,783	7,123	-1,796	20,376
	4대강 살리기	-	1,175	30,723	31,456	8,011	71,365
	수익 및 부대사업	1,854	1,746	2,216	2,984	971	9,771
	소계	3,999	9,612	47,000	42,385	4,953	107,949
한국철도 공사	운송사업	9,478	4,485	9,684	7,049	10,120	40,816
	수탁사업	688	-583	435	-458	460	542
	인천공항철도인수	-	12,057	562	354	101	13,074
	수익및부대사업	-971	-1,276	-1,283	-1,764	-1,471	-6,765
	소계	9,195	14,683	9,398	5,181	9,210	47,667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한국철도 시설공단	1단계경부고속철도	2,372	3,248	3,678	2,775	2,241	14,314
	2단계경부고속철도	10,965	7,578	7,746	1,252	-2,567	24,974
	호남고속철도	0	2,267	6,848	10,502	9,425	29,042
	수도권고속철도	0	0	0	26	3,256	3,282
	경의선 선(先)투자	0	3,000	-1,550	-950	-500	0
	소계	13,337	16,093	16,722	13,605	11,855	71,612
한국장학 재단	일반학자금 대출	-	12,500	16,900	12,000	3,500	44,900
	든든학자금 대출	-	-	8,200	9,300	12,100	29,600
	소계	-	12,500	25,100	21,300	15,600	74,500
예금보험 공사	예금보험기금	-2,364	-80	-664	104,210	119,921	221,023
	예보채상환기금	-26,003	-8,046	-6,959	-30,266	-9,810	-81,084
	소계	-28,367	-8,126	-7,623	73,944	110,111	139,939
12개 공공기관 합계		321,858	342,614	295,109	354,319	342,838	1,673,315

* 위는 공공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음.

6. 부채의 상환능력

□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장학재단을 제외한 10개 공공기관의 영업이익 합계(4.3조)로 이들 기관의 이자비용(7.3조원)도 지급하지 못하는 수준(2012년 기준)

○ 10개 공공기관의 영업이익은 2002년을 정점으로 지속적 하락 추세로서 2008년부터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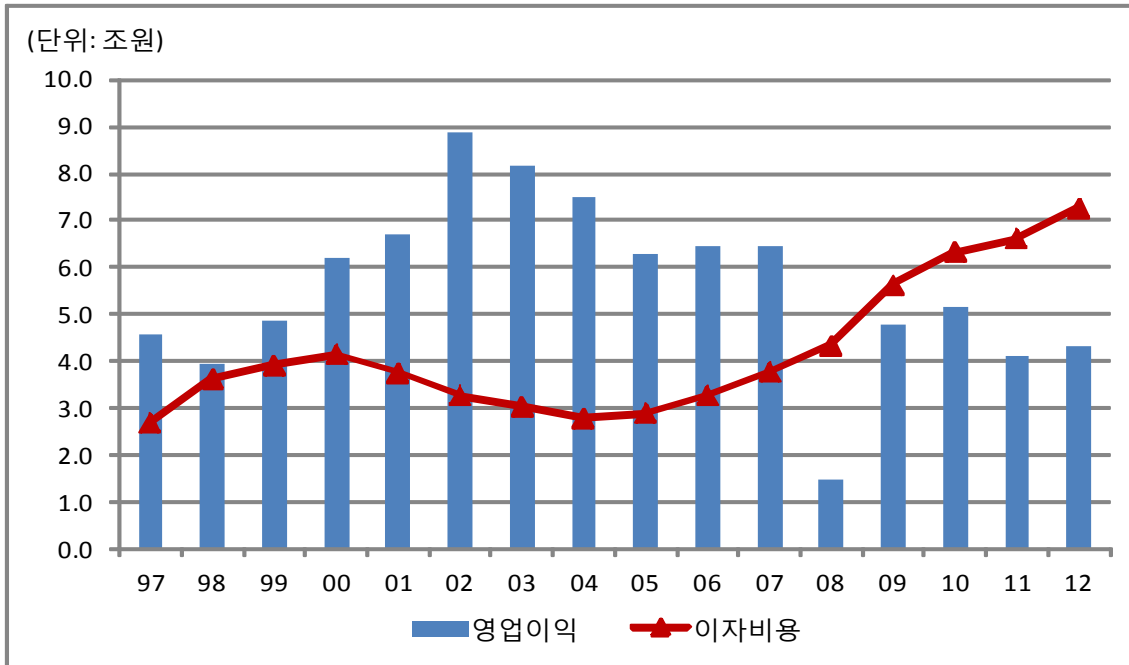
□ 이자의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¹⁾: 1배 미만인 기관은 5개

○ 석탄공사, 철도공사, 한전은 영업적자로 이자보상배율이 음(-)을 기록하고 있으며 철도시설공단과 광물자원공사²⁾는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으로 낮은 수준

1) 이자보상배율은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비율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기관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이자비용)을 어느 정도나 부담할 수 있을지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 통상적으로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이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전부 충당하기 어려운 상태로써 잠재적인 부실 위험이 있다고 평가함

2)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경우 영업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매출원가로 처리한 이자비용을 보정하여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매출원가 이자비용)/(이자비용+매출원가 이자비용)]을 산정함

[그림 15] 10개 기관의 영업이익과 이자비용의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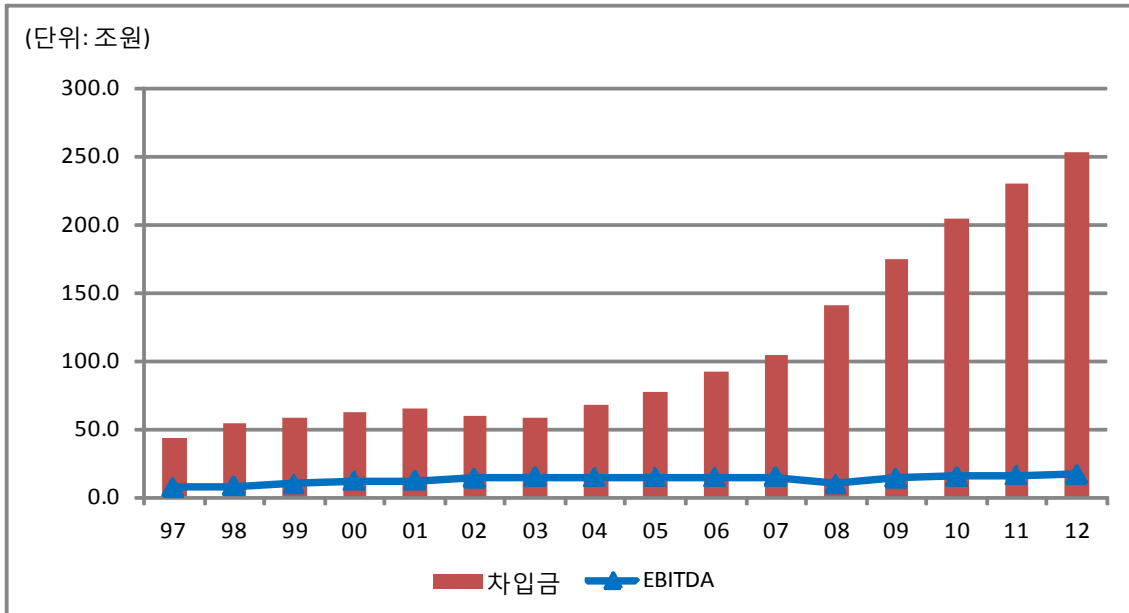


* 2002~2004년 중 영업이익이 높은 것은 낮은 유가 등에 기인

- 원금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차입금/EBITDA배율³⁾: 차입금/EBITDA배율 7.5배 이상 기관은 7개 기관이며 음(-)의 EBITDA 발생기관도 2개(석탄공사, 광물공사)
 - 차입금/EBITDA배율이 7.5배 이상이면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능력이 약하여 원금상환위험이 높아짐을 의미
 - 영업현금으로 금융부채 원리금을 상환하려면 차입금 증가율보다 더 많이 EBITDA가 증가해야 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 위 배율이 상승
 - EBITDA는 일정하나 차입금이 2008년 이후 급증하여 원금상환위험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3) EBITDA는 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의 약자로서 영업현금흐름을 나타냄

[그림 16] 10개 기관의 차입금과 EBITDA의 연도별 추이



7. 부채대책

가. 부채감축을 위한 공공기관과 정부의 역할

- 공공기관 부채의 배경은 공공요금 사업과 비공공요금 사업으로 분류하여 설명 가능
 - 공공요금 사업: 낮은 공공요금과 공공기관의 높은 원가에 기인하나 책임비중을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려움
 - ▶ 향후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원가정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
 - 비공공요금 사업: 사업이 기관의 책임 하에 자발적으로 추진되었는지 정부요청에 의해 타율적으로 추진되었는지를 밝히는 것 역시 매우 어려움
 - 향후 이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사업관련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것이 중요하며 사업별 구분회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의 역할: 방만경영 해소
 - 공공요금 사업: 원가절감에 더욱 노력할 필요(높은 원가는 결국 공공요금 인상으로 연결되는 구조로서 경영평가를 통한 원가절감 압력은 있으나 기관이 원가 절감할 유인은 없는 구조)

- 재료비 비중이 높은 기관: 가스, 한전
- 인건비 비중이 높은 기관: 코레일, 수자원, 도로공사

총괄원가 방식: 공공요금 원가가 상승하면 이를 맞추도록 요금을 인상하는 방식
 총괄원가 = 적정원가(인건비+재료비+판관비+기타 경비 등) + 적정투자보수

- 비공공요금사업: 과잉투자와 방만한 사업비 방지를 위해 의사결정과 모니터링 시스템 효율화
 - 조직과 예산이 확대되는 편익이 있어 공공기관의 과잉투자 유인 상존
- 방만경영은 부채의 모든 원인에 숨어 있는 요인으로서 민간기업 대비 경쟁과 효율화 노력이 부족하여 나타나는 현상
 - 특히 공공요금 사업의 방만경영은 그대로 원가를 상승시켜 부채로 남거나 요금을 인상시켜 직접적인 국민부담으로 귀착

□ 정부의 역할

- 공공요금 사업: 공공요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가보상률 검증 기능 강화하여 적정한 요금수준 유지
 - 원가보상률(12): 전기 88.4%, 가스 86.3%, 수도 82.6%, 도로 81.0%, 철도 78.8%
- 정부정책 사업: 필요한 사업일 경우 그 재원을 공공기관의 부채에 의존하기 보다는 공공기관 자체수입이나 재정투입을 통해 수행

<표 4>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

역할 유형	공공요금 사업	비공공요금 사업
정부	적정한 공공요금 수준 유지	공공기관 부채에 의한 재원조달 지양
공공기관	재료비와 기타경비 효율화	과잉투자 방지를 위한 의사결정시스템 투명화 방만한 사업비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방만경영 해소	

나. 공공기관 부채대책

□ 부채정보 공개

- 의미 있는 부채정보의 공개를 위해서는 사업별 구분회계가 정착될 필요
- 향후 공공기관이 공개하는 재무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검증 절차 필요

□ 공공요금 사업에 대한 철저한 원가검증

- 향후 공공요금 사업의 원가를 검증하는 절차를 제도화 하고 공공기관이 스스로 원가를 절감토록 하는 유인동기를 마련할 필요
 - 철저한 구분회계를 통해 사업별 영업 및 부채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
- 이상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요금인상 요인이 있을 경우 공공요금 인상을 검토

□ 주요 부채유발 사업에 대한 사업조정 필요

- 현행 사업방식을 유지하면서 사업규모를 다소 축소하는 정도로는 부채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근본적인 사업조정 검토가 필요

사업조정 검토대상 사업

보금자리사업, 임대주택, 혁신도시(이상 LH공사)
해외자원개발사업(석유, 가스, 광물자원공사), 무연탄생산판매사업(석탄공사)
단지사업, 4대강 살리기, 경인아라뱃길(이상 수자원공사),
도로사업(도로공사), 철도운송사업(코레일)

* 사업조정: 사업추진방식의 근본변경, 사업규모 대폭축소, 마켓테스트 등을 통한 사업중단 등

- 향후 사업관련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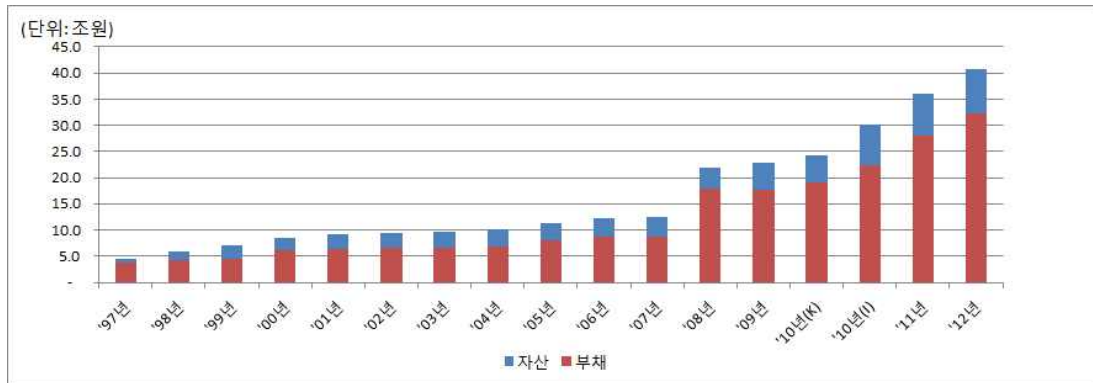
□ 부채관리체계 강화

- 부채 모니터링과 관리강화: 공공기관 부채변동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기관별 위험도를 파악하여 이를 자구노력 등 부채감축계획에 반영할 필요
 - 기관별 부채위험도에 따라 부채감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이에 따라 각 기관이 중장기재무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그 이행을 기관장에 대한 인사와 경영평가에 연계할 필요
- 주무부처 책임강화: 소관 공공기관 부채의 위험도를 주무 부처의 평가에 포함시키는 등 주무 부처의 역할을 강화
- 전 공공부문(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청)의 부채를 종합 관리하는 부처간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
 - 공공기관의 부채를 정부채무와 같은 차원에서 파악하고 해결하는 노력 필요

별첨: 12개 기관별 부채현황

1. 한국가스공사

[그림 17] 한국가스공사의 연도별 자산 및 부채 규모('97~'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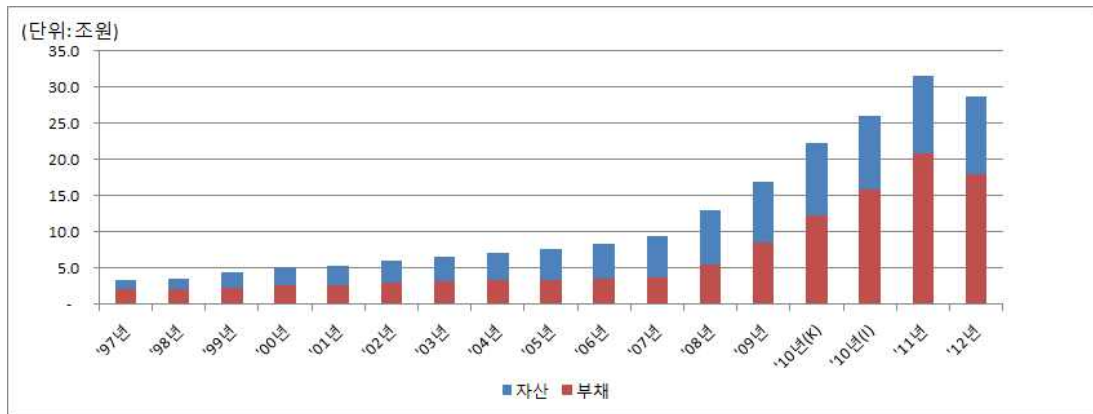
- 한국가스공사의 자산은 1997년 4.5조원에서 2012년 40.6조원으로 806% 증가하였으며, 동 기간동안 부채는 3.8조원에서 32.3조원으로 749% 증가하였음
 - 부채규모는 과거 15년간 매년 평균 15.3%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8~2012년간 부채 규모가 크게 증가함
 - 부채비율은 최근 부채 규모 증가에 따라 상당히 높아져서 2012년말 기준 385.4%를 나타냄

- 부채 증가 속도는 최근 5개년(2008년~2012년) 동안 두드러지게 상승하였음
 - 2008년~2012년 부채 증가율은 연평균 29.8%씩 총 268.9%에 달할 정도로 부채 증가 속도가 두드러지게 높았음
 - 2008년도에 부채 증가가 현저히 크며, 이후 부채증가율이 다소 둔화되다가 2011년 및 2012년에 부채 증가 규모가 각각 5.7조, 4.3조원으로 다시 커짐

- 이는 주로 2008년도의 원료비 연동제 유보금 급증, 2008년 이후 국내천연가스 공급 확대사업 추진 및 2010년 이후 크게 증가한 해외투자 자금 소요 등에 기인함

2. 한국석유공사

[그림 18] 한국석유공사의 연도별 자산 및 부채 규모('97~'12)



- 한국석유공사 자산은 1997년 3.4조원에서 2012년 28.7조원으로 740% 증가하였으며, 동 기간동안 부채는 2.1조원에서 18.0조원으로 763% 증가하였음
 - 부채규모는 과거 15년간 매년 평균 15.4%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8~2012년간 부채 규모가 크게 증가함
 - 부채비율은 최근 부채 규모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2년말 기준 부채비율은 167.5%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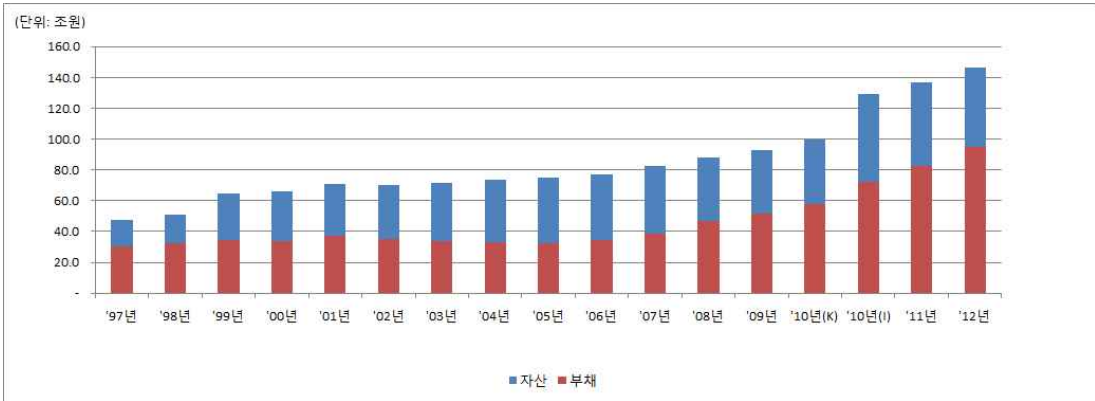
- 부채 증가 속도는 최근 5개년(2008년~2012년) 동안 두드러지게 상승하였음
 - 2008년~2012년 부채 증가율은 연평균 37.3%씩 총 388.3%에 달할 정도로 부채 증가 속도가 두드러지게 높았으며, 그 결과 동 기간 동안 부채비율이 103%p 가량 상승하였음

- 이는 주로 2008년도 이후 석유공사 대형화 사업 추진에 따라 해외석유개발사업 투자가 급증하여 이에 따른 자금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함

3. 한국전력공사(발전자회사 포함)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2011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이전에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 왔기 때문에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1997년부터 연결재무제표를 이용해 분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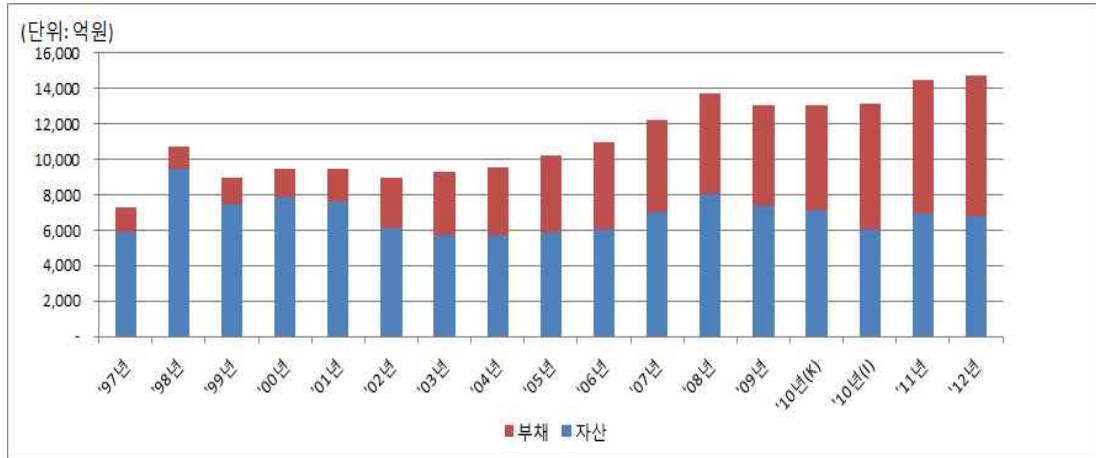
[그림 19] 한국전력공사(연결기준)의 연도별 자산 및 부채 규모('97~'12)



- 연결재무제표상 한국전력공사의 자산은 최근 15년동안 98.4조원(47.8조원→146.2조원)증가하여 205.9%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동 기간동안 부채는 64.8조원(30.3조원→95.1조원)증가하여 213.9%의 증가율을 보임
 - 부채규모는 2007년까지 대체적으로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으나, 최근 5년(2008~2012년)간 56.4조원 증가하여 15년간 부채증가액의 87%를 차지함
 - 부채비율은 1997년 173.8%에서 2007년 87.3%로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2년 186.2%로 급증함
- 최근 5년간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여 자산보다 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짐
 - 2008년~2012년 자산은 총 76.2% 증가한 반면, 부채는 총 146.0% 증가하여 부채 증가 속도가 두드러지게 높았음
- 금융부채는 최근 5년간 급증은 국제유가 인상으로 인한 연료비 상승과 전기요금 규제,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발전 자회사의 신규 발전소 건설 소요자금으로 설명할 수 있음
 - 한국전력공사는 2008년 이후 5년 연속 영업손실(개별(별도)재무제표기준)을 기록하였으며 이러한 수익성의 악화로 차입금의존도가 증가하고 이자상환능력 및 원금상환능력이 크게 감소함

4. 대한석탄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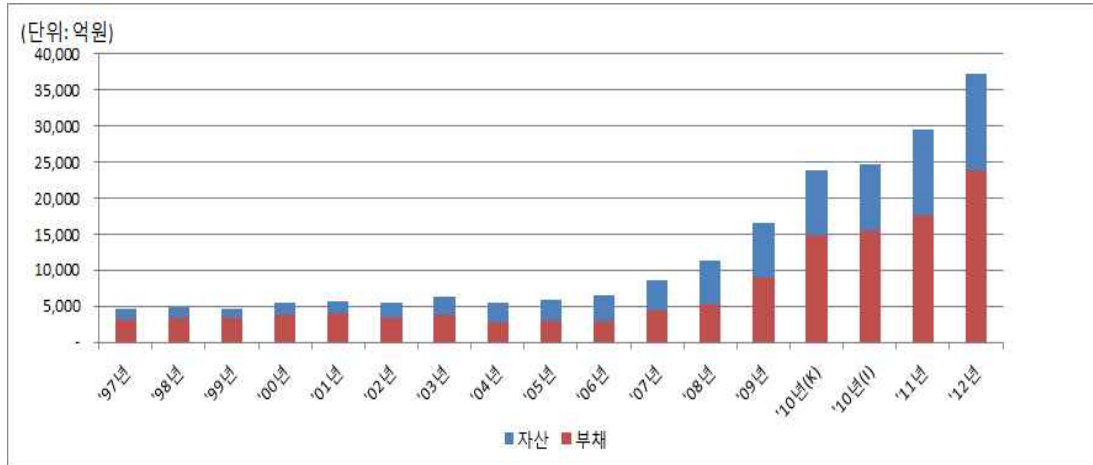
[그림 20] 대한석탄공사의 연도별 자산 및 부채 규모('97~'12)



- 대한석탄공사는 자본이 음의 값을 가지는 자본잠식 상태이므로, 부채비율은 자산대비 부채로 분석함
- 대한석탄공사 부채는 최근 15년간 꾸준히 상승하였으며 1997년 7,277억 원에서 2012년 1조 4,702억 원으로 102% 증가.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1997년 123%에서 2012년 217%로 94%p 증가
 - 대한석탄공사는 자본잠식상태로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기업으로, 1997년부터 자산규모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으나 부채규모는 1997년에 비해 2012년 두 배 가량 증가
 - 2012년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면서 부채가 자산의 2배를 초과
- 민간대비 높은 인건비, 탄광 심부화로 인한 원가상승, 생산량 감축 및 정부지원금 축소로 인한 영업 손실의 부족분을 외부에서 조달함에 따라 금융부채 증가
 - 2008년~2012년 생산량 감축으로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자산은 감소하고 부채는 증가함

5. 한국광물자원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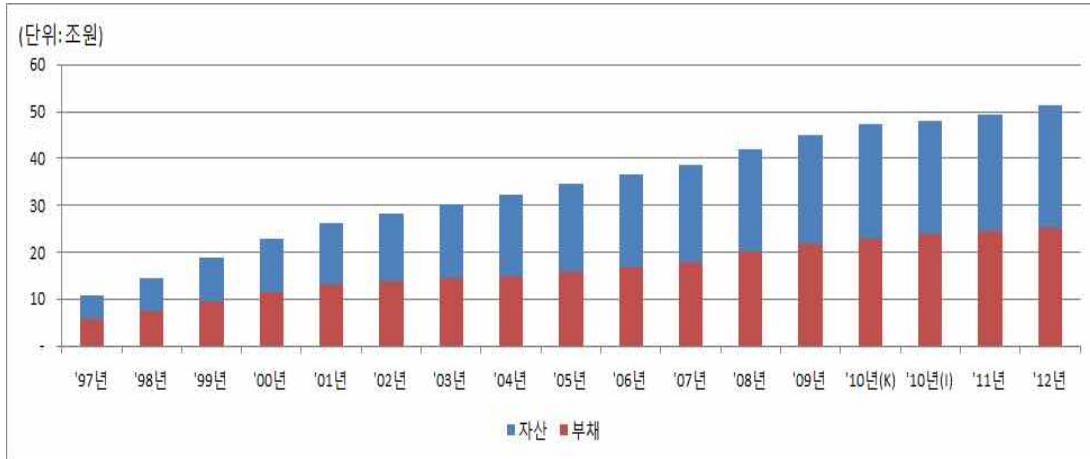
[그림 21]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연도별 자산 및 부채 규모('97~'12)



-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자산은 1997년 4,622억 원에서 2012년 3조 7,188억으로 약 700% 대폭 증가하였고, 부채 역시 1997년 3,206억 원에서 2012년 2조 3,766억 원으로 약 640% 증가함
 - 2008년 공사법 개정으로 인하여 자본금이 증액되고 해외투자 사업이 시작되면서 그 이후 자산 및 부채가 대폭 증가함
- 부채비율은 1997년 226%에서 점차 하강하여 2006년에는 88.3%였으나 이후 점차 상승하여 2012년에는 177.1%에 이룸
- 최근 5년(2008년~2012년) 동안 부채가 두드러지게 증가함
 - 1998년~2002년 112억원의 부채가 증가하였고, 2003~2007년 1,023억원의 부채가 증가함
 - 2008년~2012년 사이 약 2조원의 부채가 증가하였고, 447%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 제3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에 따라 해외광산에 투자하고 있으며, 정부출자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외부 차입에 의존하여 부채가 증가함

6. 한국도로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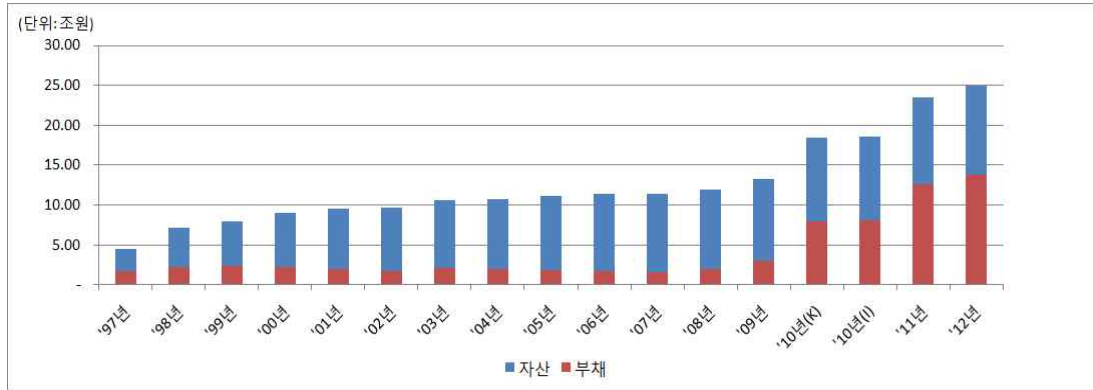
[그림 22] 한국도로공사의 연도별 자산 및 부채 규모('97~'12)



- 한국도로공사의 자산은 최근 15년 동안 40.8조원(10.7조원→51.5조원) 증가하여 381.1%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동기간동안 부채는 19.7조원(5.6조원→25.3조원) 증가하여 350.6% 증가율을 보임
 - 자산 규모는 매년 평균 10.7%씩 증가하였으며, 부채 규모는 매년 평균 10.2%씩 지속적으로 증가
 - 2005년 이후 부채증가율이 자산증가율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2년도에 자산증가율이 부채증가율에 비해 다소 높아짐
 - 부채비율은 1997년 110.9%에서 2007년 85.1%로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2년 97.1%로 다시 증가
- 부채 증가 속도는 '97년~02년 및 '08~12년 동안 두드러지게 상승하였음
 - 1997년~2002년 부채 증가율은 연평균 20.1%씩 증가하여 부채 증가 속도가 두드러짐. 2008년~2012년 부채 증가율은 연평균 4.7%씩 증가하였음
- 부채의 93.8%가 금융부채이며, 금융부채 규모 증가는 고속도로 건설투자를 위한 사채 발행 금액 증가에 기인

7. 한국수자원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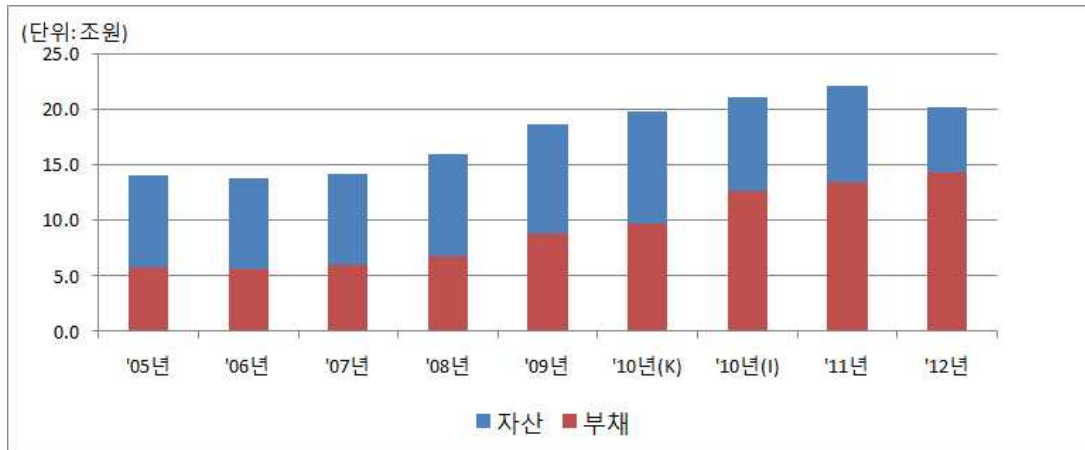
[그림 23] 한국수자원공사의 연도별 자산 및 부채 규모('97~'12)



- 한국수자원공사 자산은 1997년 4.54조원에서 2012년 25.02조원으로 451.1% 증가하였으며, 부채는 1997년 1.75조원에서 2012년 13.78조원으로 687.4% 증가
 - 부채규모는 1997년부터 2007년까지 감소하다가 2007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9~2010년간 부채규모가 크게 증가함
 - 부채비율은 1997년 62.4%에서 2007년 16.0%로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2년 122.6%로 다시 증가
- 부채 증가 속도는 최근 5개년(2008년~2012년)동안 두드러지게 상승하였음
 - 2008년~2012년 부채 증가율은 연평균 62.4%씩 증가
- 이는 주로 2009년 시작된 경인 아라뱃길 사업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기인함

8. 한국철도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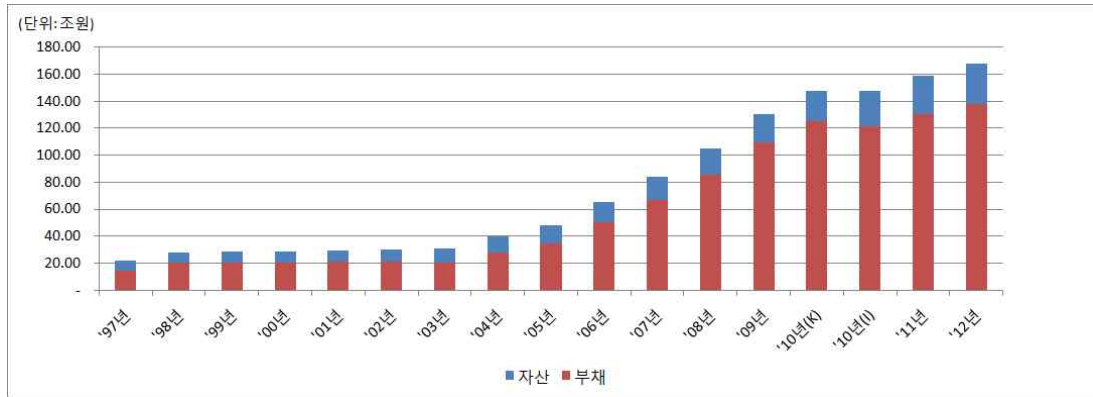
[그림 24] 한국철도공사의 연도별 자산 및 부채 규모('05~'12)



- 한국철도공사 부채는 공사가 출범한 2005년 약 5.8조원에서 2012년 14.3조원으로 146.6% 증가하였음
 - 부채규모는 과거 8년간 매년 평균 19.4%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9년~2012년 사이 부채 규모가 크게 증가함
 - 2010년 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변경되어 자회사 부채 포함 및 회계기준 변경효과로 인해 증가
 - 부채비율은 2005년 70.3%에서 2009년까지 88.8%로 완만히 증가하다가 2012년 244.2%로 급속히 증가
 - 2012년 용산역세권 토지매각 미수금의 대손충당금(2.7조원) 설정으로 증가
- 부채 증가 속도는 최근 3개년(2010년~2012년) 동안 큰 폭으로 상승했음
 - 2010년~2012년 사이 부채 증가율은 총 63.6%로 부채 증가 속도가 높았으며, 그 결과 동 기간 동안 부채비율 역시 155.4%p 가량 상승하였음
- 이는 주로 높은 인건비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운영적자 충당, K-IFRS도입으로 계열사 부채 포함, 고속철도 운영을 위한 신규차량 구입 등을 위한 자금 소요에 기인함
 - 2007년부터 매해 수천억원 대의 적자가 발생
 - 인천공항철도 지분인수 대금으로 금융부채가 증가

9.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그림 25]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연도별 자산 및 부채 규모('97~'12)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주택공사가 통합하여 설립
 - 통합 이전의 자료는 각 기관의 자료를 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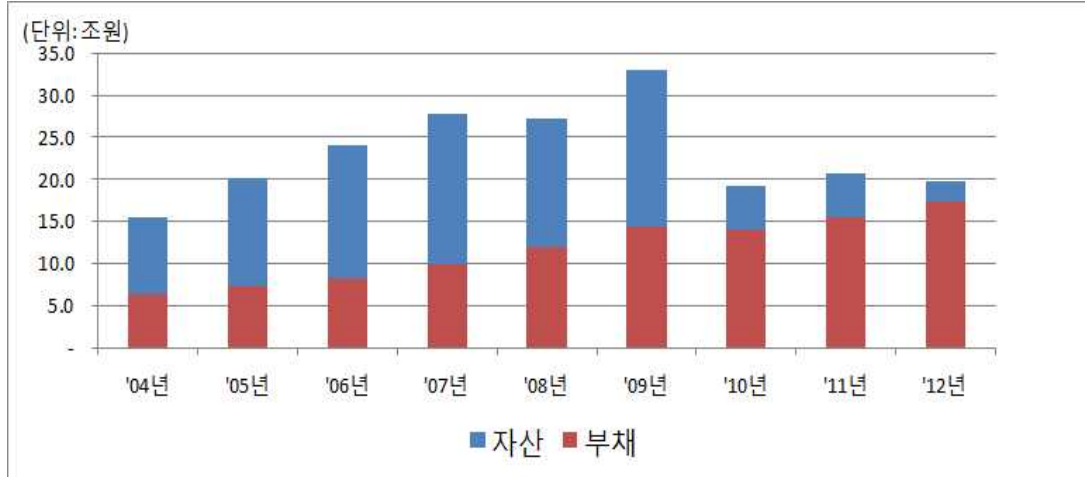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산은 1997년 22.16조원에서 2012년 167.76조원으로 657.04% 증가하였으며, 부채는 1997년 14.72조원에서 2012년 138.12조원으로 838.32% 증가
 - 부채규모는 과거 15년간 연평균 17.2%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3년~2007년간 부채 규모가 가장 크게 증가함
 - 특히 2005년~2006년 자산과 부채 규모 모두 두드러지게 증가함
 - 부채비율은 1998년 2002년까지 소폭 증가하다가 통합이 유보된 2003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2년 466%로 높은 수준을 유지함

- 부채 증가 속도는 2003년~2007년 동안 두드러지게 상승하였음
 - 2003년~2007년 부채 증가율은 연평균 27.4%씩 증가하여 부채 증가 속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결과 동 기간 동안 부채비율이 155% 가량 상승하였음

- 이는 임대주택의 대규모 건설 및 운영, 세종시 이전 및 혁신도시 관련으로 인하여 부채규모 증가 속도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후 대규모 보금자리주택 추진으로 인하여 꾸준히 부채규모가 증가함

10. 한국철도시설공단

[그림 26]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연도별 자산 및 부채 규모('0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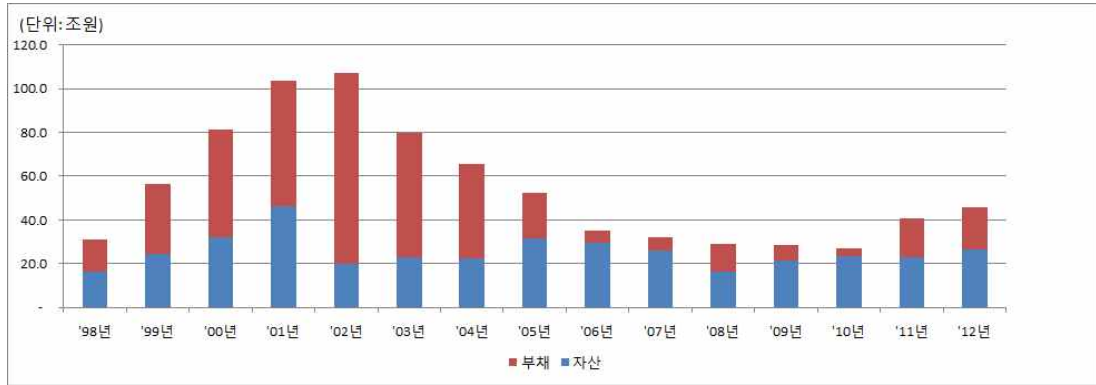
-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부채는 1992년부터 경부고속철도를 건설하고 있던 한국고속철도 공단과 일반 및 광역철도 건설을 하는 철도청 건설부문을 통합하여 출범한 2004년 6.3조원에서 2012년 17.3조원으로 154%가량 증가하였음
 - 부채규모는 과거 8년간 매년 평균 1.2조원씩 증가하였으며, 공단의 사업규모가 확장됨에 따라 부채규모가 증가한 것이 특징임
 - 부채비율은 2004년 40.7%에서 2007년까지 감소하다 다시 반등해 2012년 87.9%로 증가하였음⁴⁾
- 기관의 총 부채액은 2007년~2009년 사이 두드러지게 상승하였음
 - 2007년에서 2009년 사이 부채는 5.9조원 가량이 늘었으며, 동 기간 부채증가율은 72.0%였음⁵⁾
- 이는 주로 경부1·2 및 호남고속철도등의 건설수요 증가에 따른 건설사업 확대에 의한 자금 소요에 기인함

4) 개정 공기업 준정부기관 회계기준에서 기본재산으로 분류한 정부출연금과 선수금으로 분류한 공사 부담금을 취득자산의 차감항목으로 계정 재분류함에 따라 자산 약 20조원, 부채 약3조원, 자본 약 20조원이 감소되었으므로 소급적용시 실질적 부채비율 증가효과는 9년간 8.5% 수준

5) 2010년 회계정책 변경으로 유동부채 중 선수금 항목 3.15조원이 차감되어 해당기간 실 부채증가액은 3.1조원에 그쳤으며 부채증가율은 35.8%임

11. 예금보험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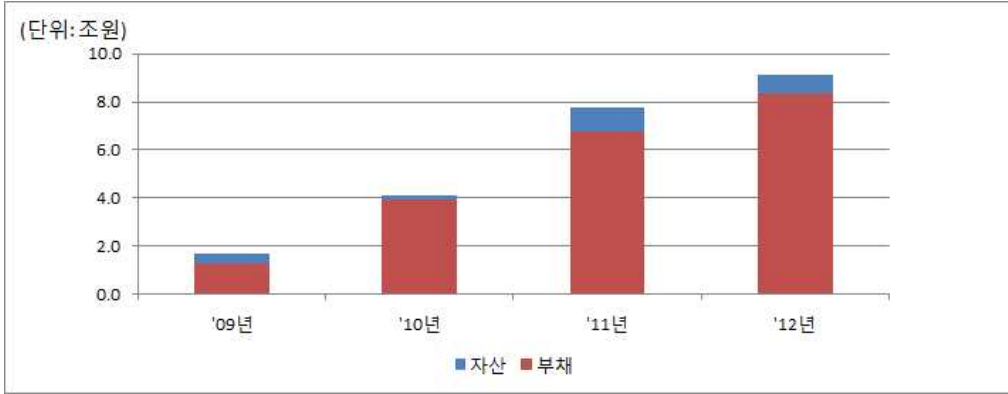
[그림 27] 예금보험공사의 연도별 자산 및 부채 규모('98~'12)



- 예금보험공사 부채는 1998년 31.0조원에서 2012년 45.9조원으로 48.1%가 증가
 - 기관은 무자본특수법인으로 부채비율이 의미가 없으며, 2012년 자산·부채비율은 1998년보다 14.6% 감소한 172.9%임
- 예금보험공사의 기금은 사채 조달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여 금융기관 구조조정 및 금융시장 안정화를 달성하는 것이 목적임
- 기관은 예금보험기금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하 “예보채 상환기금”)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기금의 목적이 상이하고 기금별로 구분 계리하도록 법상 명시되어 있음
 - 예금보험기금은 '03년~'07년까지는 평균부채금액이 0.3조원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나 2011년 이후 2개 연도에 걸쳐 대규모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진행함에 따라 2012년 부채 금액은 22.7조원으로 크게 증가
 - 예보채 상환기금 '97년 외환위기 당시 금융구조조정 추진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여 2002년 107.3조원까지 부채가 증가하였으며, 국채 전환 및 만기 상환에 따라 2007년까지 31.5조원으로 부채 감소. 2027년 상환 완료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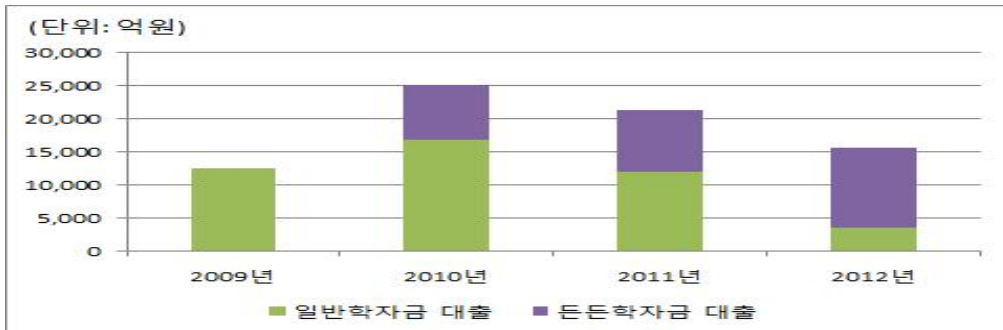
12. 한국장학재단

[그림 28] 한국장학재단의 연도별 자산 및 부채 규모('09~'12)



- 한국장학재단은 2009년도에 설립된 기관
- 한국장학재단의 2012년 자산은 9.1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동 기간동안 부채는 8.4조원으로 증가
 - 2012년 자산·부채비율은 91.6%로 자산과 부채 규모가 유사한 수준
- 기관은 금융업 종사 기관으로 특성상 대출 증가에 따라 재단체를 발행하므로 부채 증가가 불가피함
 - 재단체를 발행하여 대출업무를 실행하는 금융업 종사 기관으로 대출 증가에 따라 사채 증가가 수반됨
- 부채 증가액은 학자금 대출재원 마련을 위해 연평균 2.4조원씩 증가하였으며, 2011년도부터 기존 대출 상환이 발생함에 따라 순 부채 증가액은 다소 감소
 - 평균 부채 증가율은 102.5%로 설립 이후 부채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

[그림 29] 한국장학재단의 사업별 금융부채 증가액





지방공기업 부채증가 원인

정정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

목 차

I . 일반현황	51
II. 재무현황 및 경영성과	52
1. 지방직영기업	52
2. 지방공사·공단	55
III. 재무건전성 위협 요인	57
1. 지방직영기업	57
2. 지방공사·공단	59
IV. 분석결과 및 향후개선방향	64
〈참고〉 주요 도시공사 부채증가원인 및 전망	65~69

지방공기업 재무현황 분석

I. 일반현황

□ 지방공기업 일반현황(391개, '13.1월)

(단위: 개)

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공단**				
	소계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지역개발기금	소계	공사			공단
							도시철도	도시개발	기타공사	
391	254	116	87	33	18	137	7	16	36	78

* (직영기업) 지자체 조직 일부로 일반회계와 구분하기 위해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한 것

** (공사·공단) 지자체가 50% 이상 출자한 독립법인으로 지자체와는 별도로 운영

○ (예산) 44조원(직영 16.3조, 공사·공단 27.7조)

- (인력) 67천명(직영(공무원) 15천명, 공사·공단 52천명)

□ 지방공기업 재무현황 및 경영성과 ('12년 결산)

(단위: 조원)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자산	119.5	136.9	147.2	158.7	166.6
부채	47.3	58.2	62.9	67.8	72.5
(부채비율)	(65.6%)	(74.0%)	(74.6%)	(74.7%)	(77.1%)
자본	72.2	78.7	84.3	90.9	94.1
경영손익(억원)	△1,783	△2,873	△7,755	△358	△15,008

○ '12년 자산 166.6조원, 부채 72.5조원, 자본 94조원(부채비율 77.1%)

○ '12년 경영손익 △ 1조 5,008억원

- 상수도 156억, 하수도 △8,972억, 공영개발 849억, 지역개발기금 1,845억

- 도시철도 △8,009억, 도시개발 △608억, 기타공사 △276억, 공단 7억

□ 지방재정과의 관계

○ 지방공기업의 투자비와 소요경비 일부 지방재정에서 지원*

* '12년 지원액 : (상수도) 4,334억, (하수도) 12,589억, (도시철도) 6,031억

○ 지방공기업이 독자 경영책임을 지나 지자체가 출자하므로 지방공기업 재정문제는 최종적으로 지자체의 문제로 귀결됨

II. 재무현황 및 경영성과

<지방공기업 재무현황 총괄>

(단위: 조원)

구분(개)	자산			부채(부채비율)			경영수지 (단위: 억원)		
	'11	'12	증감(율)	'11	'12	증감(율)	'11	'12	증감
계(①+②+③)	158.7	166.6	7.9(5%)	67.8 (75%)	72.5 (77%)	4.7(7%)	△358	△15,008	△14,650
①직영기업(251)	73.4	77.9	4.5(6%)	18.4 (34%)	20.1 (35%)	1.7(9%)	1,024	△6,122	△7,146
·상수도(115)	25.4	26.4	1(4%)	1.5 (6%)	1.4 (6%)	△0.1	△275	156	431
·하수도(85)	27.8	30.3	2.4(9%)	2.9 (11%)	3.8 (14%)	0.9(33%)	△7,458	△8,972	△1,514
·공영개발(33)	6.6	7.1	0.5(8%)	2.3 (55%)	2.8 (64%)	0.4(18%)	6,886	849	△6,037
·지역개발기금(18)	13.6	14.1	0.5(4%)	11.7 (623%)	12.1 (612%)	0.4(3%)	1,871	1,845	△26
②지방공사(59)	84.3	87.8	3.4(4%)	49.2 (138%)	52.2 (145%)	3(6%)	△1,389	△8,893	△7,504
·도시철도(7)	24.4	23.9	△0.5	6.3 (35%)	6.1 (34%)	△0.2	△9,038	△8,009	1,029
·도시개발(16)	55.1	58	2.9(5%)	40.8 (287%)	43.5 (301%)	2.7(7%)	7,661	△608	△8,269
·기타공사(36)	4.8	5.9	1(21%)	2 (73%)	2.6 (81%)	0.6(29%)	△12	△276	△264
③지방공단(78)	0.9	0.9	-	0.2 (36%)	0.2 (30%)	-	7	7	-

1. 지방직영기업(공기업특별회계로 자치단체의 일부)

□ 최근 5년간 부채(부채비율)

(단위: 조원)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지방직영기업 (부채비율)	14.9 (33.8%)	15.5 (32.7%)	16.4 (32.5%)	18.4 (34%)	20.1 (35%)
· 상수도	1.4 (6.7%)	1.3 (6.0%)	1.4 (6.4%)	1.5 (5.6%)	1.4 (5.2%)
· 하수도	1.4 (7.3%)	1.5 (7.3%)	1.7 (7.5%)	2.9 (11.4%)	3.8 (14.3%)
· 공영개발	3.1 (121.8%)	2.5 (77.9%)	2.2 (74.6%)	2.3 (55.3%)	2.8 (63.9%)
· 지역개발기금	9 (613.6%)	10.2 (648.5%)	11 (631%)	11.7 (623%)	12.1 (612.1%)

- (상·하수도) 상수도는 부채규모에 큰 변화없으나, 하수도는 환경오염관련 기준강화로 하수관거 정비 등 신규 시설투자 필요성이 높아졌으며, 이를 BTL 방식으로 추진*하여 부채 증가

* 하수관거, 하수처리장 등의 시설확충에 민간자본을 이용하게 하는 정부 정책에 따름

<상·하수도 부채상세내역>

(단위: 억원)

구분		부채		
		계	금융부채	비금융부채*
상수도	증감	△960	△754	△206
	'12년	13,905	10,871	3,034
	'11년	14,865	11,625	3,240
하수도	증감	9,417	△164	9,581
	'12년	37,917	9,283	28,634
	'11년	28,500	9,447	19,053

* 비금융부채 : 퇴직급여충당금, 임대보증금 등

- (상수도) 금융부채가 '12년 부채의 78%를 차지하나, 이 중 민간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은 20억에 불과, 대부분 지방 또는 국가자금(지역개발기금, 재정자금, 공채, 환특자금)임
 - (하수도) 비금융부채가 '12년 부채의 75%를 차지하는데, 이는 설비투자를 BTL 방식으로 진행함에 따라 장기미지급금이 증가한 것임
- 낮은 요금수준으로 BTL 상환대금은 미래 추가 재정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
- ※ 매년 BTL 임대료 상환예상금액(1,415억)은 영업수익(2,233억)의 63%로 경영적자 확대될 예상('12)

- (공영개발) 지자체의 일시적인 개발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사업소·단으로 설치하는 조직임

<공영개발 부채상세내역>

(단위: 억원)

계 (구성비율)	금융부채		선수금*	임대보증금	기타 (미지급금, 퇴출 등)
	정책자금	민간금융기관			
27,549 (100%)	7,558 (27%)	4,917 (18%)	12,077 (44%)	260 (1%)	2,738 (10%)

* 선수금: 개발용지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 그에 대한 대가를 미리받아 부채로 인식하는 것

- 공영개발사업은 지자체 보유토지를 이용하여 개발하므로 도시개발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융부채 부담이 적음

- (지역개발기금) 첨가소화채권*으로 일반 국민이 구매 한 부분을 부채로 인식, 동 자금 운영을 위해 공익사업에 용자하는 역할을 하므로 기금 부채 12.1조원은 상환에 어려움 없음

* 주택이나 동산을 구입 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채권, 국민주택채권, 지역개발채권 등이 있음

□ 최근 5년간 경영성과

(단위: 억원)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지방직영기업	2,143	1,607	△3,581	1,024	△6,122
· 상수도	1,917	464	557	△275	156
· 하수도	△3,116	△4,619	△6,376	△7,458	△8,972
· 공영개발	1,960	4,370	555	6,886	849
· 지역개발기금	1,381	1,392	1,683	1,871	1,845

- (상·하수도) 낮은 요금현실화율로 매년 대규모 지자체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보전 후에도 약 8,816억원('12년) 손실 발생

* '12년 지원액(운영적자 보전) : (상수도) 687억, (하수도) 2,411억

'12년 지원액(시설투자 보전) : (상수도) 3,647억, (하수도) 10,178억

- (공영개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공영개발사업의 당기순이익은 824억원으로 공영개발사업 전체 당기순이익의 97.1%를 차지
- (지역개발기금) 이차차익에 따른 자금운용이익으로 매년 경영수익 발생

< 지역개발기금 조달이자율, 대여이자율 비교 >

이자율		영업수익	영업비용
조달 이자율	대여 이자율	융자금이자수익	지방채이자
평균 2.5%	평균 4.3% (범위 2.6%~6.0%)	4,537억원	3,004억원

- 조달이자율보다 높은 대여이자율로 융자금이자수익에서 지방채이자, 기금 관리비, 감가상각비 등을 차감해도 영업이익 1,528억원 발생

□ 지자체별 지방직영기업 부채 및 경영성과('12년)

(단위: 부채 조원, 경영성과 억원)

구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부채 규모	20.1 조원	0.8	0.6	0.4	1.9	0.4	0.6	0.6	0.1	5.2	0.9	0.9	1.5	1.1	1.3	1.4	2.0	0.4
경영 성과	-6,122 억원	168	27	-142	1,158	59	-19	99	-5	-2,380	-441	-122	-784	-381	-895	-1,230	-1,057	-177

-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하수도 손실로 적자 발생, 부채는 주로 지역개발기금 및 공영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

2. 지방공사·공단(독립채산제, 재정문제의 최종책임은 지자체에 있음)

□ 최근 5년간 부채(부채비율)

(단위: 조원)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① 지방공사 (부채비율)	32.1 (117%)	42.4 (139%)	46.2 (140%)	49.2 (140%)	52.2 (147%)
· 도시철도공사	6.3 (37.8%)	5.8 (32.2%)	6.2 (33.8%)	6.3 (34.8%)	6.1 (34%)
· 도시개발공사	24.8 (295.8%)	35 (347.1%)	38 (316.3%)	40.8 (286.6%)	43.5 (300.6%)
· 기타공사	1.1 (42%)	1.7 (64.1%)	2 (75.7%)	2 (73.2%)	2.6 (81.3%)
② 지방공단 (부채비율)	0.3 (58.7%)	0.3 (42.8%)	0.2 (36%)	0.2 (35.7%)	0.2 (30%)

※ 기타공사: 지방공사 중 도시철도와 도시개발을 제외한 기관으로 통상 지역 개발(기초단위), 시설관리, 유통, 관광사업을 위해 설립된 기관임

- (도시철도) '12년 부채 6.1조는 건설부채 1.3조, 운영부채 2.9조, 기타 1.8조(퇴직급여충당금 등)로 구성되며 부채규모 일정수준 유지
 - 건설부채는 지하철 도입시 발생한 차입금을 현물출자시 공사로 이관한 것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전액 지원(서울제외)
 - 운영부채는 과거 운영비 부족분 보전을 위해 도시철도공채를 발행한 것, 현재는 운영부채 보전 위한 공사채 발행 금지
- (도시개발) '12년 부채 43.5조원은 금융부채 30.1조, 임대보증금 4.5조, 선수금 4.6조, 기타 4.3조원으로 구성되며, 지방공사 부채의 83% 차지
 - '06년 이후 개발사업 대폭 확대, '08년 금융위기에 따른 '09년 재정사업 확대·추진*, 부동산 경기침체로 분양이 저조해지면서 부채 증가
 - * 도시공사 부채 '09년에 10.2조 급증('08년 24.8조→ '09년 35조, 증가율 41%)
 - 투자자금 회수어려움 및 무분별한 신규사업 추진에 대한 제도 강화의 영향으로 신규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하는 추세*임
 - * 현재 진행 중인 사업 137개(대행사업 제외) 중 86개(63%)가 '08 이전에 개시된 사업이고 15개 중 8개 도시공사가 '11년 이후 신규사업 추진하지 않음

- (기타공사) 기초도시공사의 무리한 개발사업추진 및 분양 부진으로 부채증가

< 기타공사 성격별 재무현황 >

(단위: 억원)

구분	자산		부채		당기순손익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계	58,619	100.0%	26,293	100.0%	△276
지역개발	34,890	59.5%	24,021	91.4%	△300
시설관리, 유통, 관광	23,729	40.5%	2,272	8.6%	25

- 기타공사 중 용인(5,544억원), 김포(5,240억원), 하남(4,168억원), 태백(3,392억원) 등 지역개발공사의 부채규모가 총 2.4조원으로 기타공사 전체부채의 91.4%임

- (지방공단) 지자체 시설 위탁·운영을 위한 기관으로 자체사업을 수행하지 않으며 공단 부채 대부분은 영업상 발생하는 미지급금 및 예수금임(금융부채 63억)

□ 최근 5년간 경영성과

(단위: 억원)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① 지방공사	△3,745	△4,500	△4,186	△1,389	△8,893
· 도시철도공사	△7,407	△8,283	△8,706	△9,038	△8,009
· 도시개발공사	3,721	3,829	4,263	7,661	△608
· 기타공사	△59	△46	257	△12	△276
② 지방공단	△181	20	12	7	7

-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스크린도어 등 안전시설 신규설치, 낮은 요금현실화율 및 복지무임승차손실로 경영적자 누적
- (도시개발) '12년 SH 공사의 대규모 경영손실('12년 △5,354억원)로 일시적으로 도시공사 전체 경영손실('12년 △608억원) 기록
 - 나머지 15개 공사의 경영이익은 1,392억원 증가('11년 3,354억원 → '12년 4,746억원)

□ 지자체별 지방공사·공단 부채 및 경영성과('12년)

(단위: 부채규모 조원, 경영성과 억원)

구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부채규모	52.4조원	22.9	3.4	1.1	8.3	0.7	0.3	0.5	10.5	1.6	0.3	0.5	0.4	0.7	0.5	0.7	0.1
경영성과	-8,886억원	-8,923	-385	-1,054	-1,938	-298	-391	92	3,190	-451	163	72	139	147	95	224	432

- 도시공사 부채로 서울, 경기, 인천의 부채규모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크며, 도시철도 대규모 경영손실로 광역 지자체 대규모 총손실

III. 재무건전성 위협 요인

1. 지방직영기업(자치단체의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

상·하수도

□ 낮은 요금현실화율로 지방재정 부담

① 요금현실화율 현황

○ 연도별 요금현실화율 현황('08~'12년)

(단위 : 원, %)

구분		'08	'09	'10	'11	'12
상수도	평균요금(원/m ³)	598.6	593.7	597.5	602.7	628.6
	평균원가(원/m ³)	687.1	721.0	726.2	765.8	750.2
	현실화율(%)	87.1%	82.3%	82.3%	78.7%	83.8%
하수도	평균요금(원/m ³)	277.5	284.9	291.1	301.2	321.6
	평균원가(원/m ³)	628.6	693.9	764.5	821.6	843.3
	현실화율(%)	44.1%	41.1%	38.1%	26.1%	38.1%

- '12년 상·하수도 요금현실화율이 다소 개선되었으나, 하수도(38%)의 요금현실화율은 절대적으로 낮은 수치임

○ 광역, 기초별 요금현실화율 현황('12년)

(단위: 개)

구분		계	30%이하	30%~50%	50%~70%	70% 이상
상 수 도	계	115(100%)	2(2%)	22(19%)	30(26%)	61(53%)
	광역	9	-	-	1(세종)	8
	기초	106	2	22	29	53
하 수 도	계	85(100%)	60(71%)	5(6%)	16(19%)	4(4%)
	광역	7	1(제주)	-	2	4
	기초	78	59	5	14	-

- 요금현실화율은 이용인구가 적은 시군구 단위에서 특히 낮았는데, 상수도 중 24개 기관(전체의 21%)의 요금현실화율이 50% 이하였고, 하수도는 절반 이상(60개 기관, 전체의 71%)이 요금현실화율 30% 이하임

② 경영손실 및 지자체 재정부담 현황

○ 광역, 기초별 경영성과('12년)

(단위: 억원, 개)

구분	영업손익	당기순이익			요금 현실화율	
		계	흑자금액(기관수)	적자금액(기관수)		
상수도	계(115)	△1,245	156	1,527(44개)	△1,371(71개)	83.8%
	광역(9)	66	187	428(6개)	△241(3개)	88.8%
	기초(106)	△1,311	△31	1,099(38개)	△1,130(68개)	80.1%
하수도	계(85)	△11,497	△8,972	170(1개)	△9,142(84개)	38.1%
	광역(7)	△546	△542	170(1개)	△712(6개)	74.8%
	기초(78)	△10,951	△8,430	-	△8,430(78개)	26.8%

- 상수도의 경우 9개 특·광역시의 당기순이익(187억원)이 상수도 전체 당기순이익(156억원) 상회 → 기초상수도 경영손실 발생
- 하수도의 경우 기초하수도의 요금현실화율은 광역하수도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져 적자규모가 큼

○ 상·하수도 영업이익 및 지자체 지원금* 현황

* 경상경비 지원보조금, 이자상환 보조금 등 경상적 보조금

(단위: 억원)

구분		'08	'09	'10	'11	'12
계	영업손익	△4,296	△7,222	△9,095	△11,041	△12,742
	지자체 지원금	1,827	1,552	1,968	2,227	3,098
상수도	영업손익	407	△892	△800	△1,521	△1,245
	지자체 지원금	686	587	679	598	687
하수도	영업손익	△4,703	△6,330	△8,295	△9,520	△11,497
	지자체 지원금	1,141	965	1,289	1,629	2,411

- 상·하수도의 영업손실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자체 일반회계의 상·하수도에 대한 손실보전금액도 매년 증가함

○ 지방채무와 상·하수도 부채현황('08~'12년)

(단위: 억원)

구분	'08		'09		'10		'11		'12	
지방부채*	315,539	%	391,433	%	417,539	%	403,638	%	434,992	%
계	27,946	8.9	28,162	7.2	31,863	7.6	43,365	10.7	51,822	11.9
상수도부채	13,881	4.4	12,990	3.3	14,463	3.5	14,865	3.7	13,905	3.2
하수도부채	14,065	4.5	15,172	3.9	17,400	4.2	28,500	7.1	37,917	8.7

* 지방부채 '08~'10년 총계(내외부거래 제외전), '11~'12년 순계(내외부거래 제거후)

- 지방상·하수도 부채는 지방부채의 12% 수준까지 매년 확대

2. 지방공사 · 공단(도시철도와 도시개발공사가 중심)

도시철도 및 교통공사

□ 낮은 요금현실화율 및 복지무임손실로 지방재정 부담

① 도시철도 경영손익 현황

(단위: 억원)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요금현실화율(%)	56.5	55.5	55.4	55.8	60.8
경영손실(A)	△7,407	△8,283	△8,706	△9,038	△8,009
무임승차손실*(B) (비율 B/A)	△3,275 (44%)	△3,255 (39%)	△3,345 (38%)	△3,587 (40%)	△3,721 (46%)
운영손실 보전 지원금*(C)	2,656	2,856	3,043	3,201	3,147
운영손실 미보전 손실(A-C)	△10,063	△11,139	△11,749	△12,239	△11,156

* 무임수송관련 총손실액에서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받은 내역 제외(순손실개념)

** 운영손실 보전 : 무임승차, 환승할인 및 기타 운영손실 전체에 대해 일괄보전

- 7개 도시철도는 무임승차, 환승할인 및 낮은 요금으로 3년 이상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경영개선노력으로 '12년 손실 폭이 1천억 가량 감소

② 요금현실화율 현황

(단위: %, 원)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평균 요금	수송 원가	현실 화율	평균 요금	수송 원가	현실 화율	평균 요금	수송 원가	현실 화율	평균 요금	수송 원가	현실 화율	평균 요금	수송 원가	현실 화율
계	732	1,295	56.5%	720	1,297	55.5%	716	1,293	55.4%	731	1,310	55.8%	838	1,378	60.8%
서울 메트로	736	1,018	72.3%	727	1,050	69.3%	726	1,092	66.5%	726	1,049	69.1%	824	1,138	72.4%
서울 도철	760	1,277	59.5%	754	1,250	60.4%	749	1,217	61.6%	750	1,276	58.8%	837	1,287	65.0%
부산 교통	745	1,579	47.2%	695	1,559	44.6%	684	1,484	46.1%	764	1,575	48.5%	835	1,575	53.0%
대구 도철	605	2,286	26.5%	589	2,122	27.8%	592	1,951	30.3%	675	2,048	32.9%	1,048	2,091	50.1%
인천 교통	656	1,838	35.6%	702	1,762	39.8%	685	1,801	38.0%	669	1,886	35.5%	712	2,098	33.9%
광주 도철	551	4,190	13.2%	549	5,156	10.7%	536	4,941	10.9%	573	4,757	12.0%	597	4,803	12.4%
대전 도철	668	2,825	23.6%	643	2,243	28.7%	641	2,202	29.1%	691	2,141	32.3%	1,028	2,578	39.9%

- 도시철도 '12년 평균 요금현실화율은 61%로 운영수입으로 서비스 원가를 보전하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함

③ 무임수송손실로 인한 경영손실 현황

(단위: 억원)

공사명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경영손실	무임손실	손실비중	경영손실	무임손실	손실비중	경영손실	무임손실	손실비중	경영손실	무임손실	손실비중	경영손실	무임손실	손실비중
계	7,407	3,275	44%	8,283	3,255	39%	8,707	3,345	38%	9,038	3,587	40%	8,009	3,721	46%
서울메트로	1,439	1,352	94%	2,374	1,326	56%	2,568	1,390	54%	2,114	1,437	68%	1,728	1,642	95%
서울도철	2,305	866	38%	2,140	829	39%	2,218	838	38%	2,822	878	31%	1,988	1,030	52%
부산교통	808	684	85%	1,029	724	70%	1,064	742	70%	1,147	842	73%	1,078	892	83%
대구도철	1,683	242	14%	1,709	245	14%	1,592	239	15%	1,510	267	18%	848	-5	1%
인천교통	348	15	4%	328	3	1%	506	2	0%	638	11	2%	1,609	11	1%
광주도철	237	48	20%	286	53	19%	309	55	18%	311	62	20%	341	70	21%
대전도철	587	68	12%	417	75	18%	450	79	18%	496	90	18%	417	81	19%

- * 무임수송손실 : 총무임수송손실액 중 일반회계로부터 지원금액을 제외한 것임
- 서울메트로 및 부산교통공사의 무임수송손실이 경영손실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95%, 83%로 손실보전이 절실한 상황임

④ 도시철도에 대한 지자체 보전현황

(단위: 억원)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계		12,561	19,047	7,817	6,419	6,031
건설부채등 시설비 지원	소계	9,906	16,192	4,774	3,218	2,884
	건설부채 원리금상환	8,456	13,239	2,844	2,002	1,548
	건설투자	791	1,017	865	388	419
	시책사업 (승강편의시설 등)	659	1,936	1,064	827	916
운영적자 지원	소계	2,656	2,856	3,043	3,201	3,147
	무임승차손실보전	40	57	64	96	376
	환승손실보전	230	317	358	391	812
	기타운영적자보전	2,385	2,481	2,621	2,715	1,959

- 건설부채 상환 및 운영적자 보전을 위해 매년 6천억~1.9조원의 재정보전이 이루어져왔으며, 이는 지방재정의 부담으로 작용

도시개발공사

□ 개발사업확대, 부동산경기침체로 도시공사 재정건전성 악화

※ 도시공사 부채가 본격적으로 증가한 '06년 이후 자료 분석

① 연도별 부채현황

- '06년 개발사업 대폭 확대로 '07년 '06년 대비 5.2조(35%) 부채 증가, '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09년 재정사업 확대로 10.2조(41%) 증가
- 소요재원을 공사채로 충당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분양이 저조하여 유동성 확보가 곤란한 상태임
- 부채증가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부채총량은 감소되지 않음

(단위: 억원)

기관명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상
총계	150,204	202,044	247,827	349,820	379,955	408,440	435,264	436,202
증가액	-	51,840	45,783	101,993	30,135	28,485	26,824	938
증가율	-	35%	23%	41%	9%	7%	7%	0.2%
서울SH공사	73,786	97,258	108,090	163,455	162,314	175,254	183,350	187,590
경기도공	39,425	47,018	52,644	67,159	75,271	70,911	84,357	81,402
인천도공	11,867	21,672	29,257	44,609	56,352	73,645	79,272	78,431
부산도공	6,331	10,412	17,869	21,671	24,777	26,298	24,708	25,288
강원개공	2,837	5,333	7,746	10,488	14,033	12,985	12,498	12,616
그 외 11개	15,958	20,351	32,221	42,438	47,208	49,347	51,079	50,875

② 수도권 vs. 그 외 공사 부채현황

(단위: 억원)

기관명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상
계	150,204	202,044	247,827	349,820	379,955	408,440	435,264	436,202
수도권 공사 (서울,인천,경기)	125,078	165,948	189,991	275,223	293,937	319,810	346,979	347,423
	(83%)	(82%)	(77%)	(79%)	(77%)	(78%)	(80%)	(80%)
증가액	-	40,870	24,043	85,232	18,714	25,873	27,169	444
증가율	-	33%	14%	45%	7%	9%	8%	0.1%
그 외 13개 공사	25,126	36,096	57,836	74,597	86,018	88,630	88,285	88,779
	(17%)	(18%)	(23%)	(21%)	(23%)	(22%)	(20%)	(20%)
증가액	-	10,970	21,740	16,761	11,421	2,612	-345	494
증가율	-	44%	60%	29%	15%	3%	0%	0.6%

- 수도권 도시공사(SH, 인천, 경기)의 부채(34.7조원)가 전체 부채 43.5조원의 79.7%를 차지함('12년)
- '06년 개발사업 확대는 수도권외 공사('06년 대비 '08년 130% 증가), '09년 재정사업 확대는 수도권 공사('08년 대비 '09년 45% 증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 수도권 외의 공사에서는 '11년 이후 부채 감축이 진행되나, 수도권 공사는 사업진행이 계속되어 부채가 증가추세임

③ 부채 상세구성내역

(단위: 억원)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상
총부채	15.0	20.2	24.8	35.0	38.0	40.8	43.5	43.7
금융부채	12.2	15.8	16.4	24.4	25.2	29.0	30.1	30
(구성비율)	(81%)	(78%)	(66%)	(70%)	(66%)	(71%)	(69%)	(69%)
임대보증금	0.6	0.7	1.0	1.7	2.7	4.0	4.5	5.1
	(4%)	(3%)	(4%)	(5%)	(7%)	(10%)	(10%)	(12%)
선수금	0.9	2.3	3.5	4.7	4.2	4.3	4.6	5.4
	(6%)	(11%)	(14%)	(13%)	(11%)	(11%)	(11%)	(12%)
기타	1.4	1.5	3.8	4.2	5.9	3.6	4.3	3.2
	(9%)	(7%)	(15%)	(12%)	(16%)	(9%)	(10%)	(7%)

- 전체 부채 중 금융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06년 81%였으나, '11~'13년 상반기 70%대로 하락하여 금융부채 비중이 낮아짐
- 임대보증금은 '06년 4%에서 '13년 상반기 12%로 증가 → 지방 도시공사가 서민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을 확대한 결과임
- 부채 전체 구성비 중 이자가 발생하는 금융부채 비중이 감소하고, 임대주택관리 및 선분양 등 사업의 성격상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임대보증금, 선수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추세임

④ 연도별 금융부채 발생원인 분석

(단위: 억원)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상
금융부채(①+②)	121,840	160,440	189,704	263,539	286,024	289,517	301,092	299,548
증가액	-	38,600	29,264	73,835	22,485	3,493	11,575	-1,544
증가율	-	32%	18%	39%	9%	1%	4%	-1%
① 지역개발	96,078	127,045	151,517	211,614	235,476	224,099	219,838	216,727
(구성비율)	(78.9%)	(79.2%)	(79.9%)	(80.3%)	(82.3%)	(77.4%)	(73.0%)	(72.4%)
도시개발	31,523	42,742	48,026	86,131	81,012	69,236	73,080	73,728
(구성비율)	(25.9%)	(26.6%)	(25.3%)	(32.7%)	(28.3%)	(23.9%)	(24.3%)	(24.6%)
택지개발	45,699	58,941	64,908	74,179	87,869	86,288	83,093	77,822
(구성비율)	(37.5%)	(36.7%)	(34.2%)	(28.1%)	(30.7%)	(29.8%)	(27.6%)	(26.0%)
산업단지	8,135	9,182	15,961	25,706	36,884	37,041	34,200	34,836
(구성비율)	(6.7%)	(5.7%)	(8.4%)	(9.8%)	(12.9%)	(12.8%)	(11.4%)	(11.6%)
기타(유통, 관광)	10,721	16,180	22,622	25,598	29,711	31,534	29,465	30,341
(구성비율)	(8.8%)	(10.1%)	(11.9%)	(9.7%)	(10.4%)	(10.9%)	(9.8%)	(10.1%)
② 국가정책연계	25,762	33,395	38,187	51,925	50,548	65,418	81,254	82,821
(구성비율)	(21.1%)	(20.8%)	(20.1%)	(19.7%)	(17.7%)	(22.6%)	(27.0%)	(27.6%)
임대사업	25,220	30,970	33,259	42,458	41,371	42,039	43,598	44,213
(구성비율)	(20.7%)	(19.3%)	(17.5%)	(16.1%)	(14.5%)	(14.5%)	(14.5%)	(14.8%)
보금자리	542	801	897	3,721	3,855	17,014	32,356	33,599
(구성비율)	(0.4%)	(0.5%)	(0.5%)	(1.4%)	(1.3%)	(5.9%)	(10.7%)	(11.2%)
혁신도시	-	1,624	4,031	5,746	5,322	6,365	5,300	5,009
(구성비율)	(0.0%)	(1.0%)	(2.1%)	(2.2%)	(1.9%)	(2.2%)	(1.8%)	(1.7%)

- 지방도시공사의 부채는 도시·택지, 산업단지개발과 같은 지역개발사업과 임대, 보증자리 및 혁신도시 사업 등 국가정책연계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발생
- 지역개발사업과 국가정책연계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금융부채는 ('06년) 8:2 → ('13년 상반기) 7:3 정도로 국가정책연계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이 증가추세임
- 금융부채는 '07~'09년 급속히 증가한 후, 부채엄격관리로 증가율이 완화되는 추세를 보였고, '13.6월말 금융부채총량이 1,500억원 가량 감소함

IV. 분석결과 및 향후개선방향

□ 지방공기업 재무현황 분석결과

① 지방직영기업

- (상·하수도) 절대적으로 낮은 요금수준이 지방재정의 부담으로 작용

② 지방공사·공단

- (도시철도) 절대적으로 낮은 요금수준과 무임수송손실로 인한 대규모 경영손실이 지방재정의 부담으로 작용
- (도시개발) 개발사업 확대 및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한 부채문제로 도시공사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어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우려

□ 향후개선방향

① 상·하수도 및 도시철도 경영적자의 구조적문제 해결

분석결과	그간 추진사항	향후 제도개선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하수도 및 도시철도 손실은 지방재정에 만성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절감, 부가수입창출수단 발굴로 경영효율 개선 노력 ■ 직영기업 평가주기 단축(2년 → 1년) ■ 적절한 요금현실화 및 무임수송 손실 보전을 이끌어내는데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금문제 및 무임수송 등 구조적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② 도시공사 부채문제 해결을 통한 재무건전성 제고

분석결과	그간 추진사항	향후 제도개선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공사 부채문제 장기화로 지방재정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사업 추진관련 제도 및 공사채 발행제도 강화하여 부채증가율 둔화됨 ■ 기추진한 사업에 자금투입으로 부채실질감축에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채를 실질적으로 감축하여 재무건전성 개선 필요 (부동산 경기침체로 부채문제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

※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은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및 경영정상화 방안」 발표시 공개 예정

1. 서울SH공사: 부채 18.3조원, 부채비율 346%('12년)

- (현황) 국가 및 지자체 정책이행을 위해 임대사업(국가정책관련 금융부채 총부채의 39%)을 추진하여 '12년 총부채 중 임대사업관련된 금융부채 3.7조, 임대보증금 4조원임(총 부채 18.3조의 41%)
- ※ (총부채) '09년 16.3조 → '12년 18.3조, 2조 증가 / (금융부채) '09년 13.6조 → '12년 12.6조, 1조 감소 / (임대보증금) '09년 1.4조 → '12년 4조, 2.6조 증가
- '12년 말 분양이익의 대폭 축소, 자산가치손실 인식 등으로 5,354억원의 대규모 손실 발생했으나, '13.6월 410억원 경영이익 발생하여 흑자전환

<연도별 재무현황(서울SH공사)>

(단위: 억원)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상
부채	73,671	97,257	108,090	163,455	162,316	175,254	183,351	187,590
부채비율	335%	391%	370%	506%	360%	313%	346%	334%
당기순이익	284	917	2,739	1,867	2,140	4,307	-5,354	410

- (문제점) 관리임대주택 증가로 임대사업관련한 부담 지속 증가할 전망
 - * 관리 임대주택 1채당 113,213원 손실(상암단지 전용 59㎡ 기준), 관리가구수 137,070가구 임대사업손실 : ('11) △1,903억, ('12) △2,277억
- (전망) 서울시 중심의 강도 높은 부채관리정책 추진으로 기확정된 분양 수입에 의해 '13년말 1.4조원 금융부채가 감축될 예정이고, '14년도에도 약 6.8조원의 금융부채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

<연도별 사업유형별 금융부채 현황(SH공사)>

(단위: 억원)

구분(단위:억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상
금융부채(①+②)	65,770	85,344	89,466	135,670	127,516	122,672	125,883	124,544
①지역개발	44,237	58,820	60,875	96,294	90,725	76,791	76,918	74,899
	67%	69%	68%	71%	71%	63%	61%	60%
도시개발	30,136	38,475	37,572	67,919	64,550	48,909	51,439	54,088
택지개발	8,879	11,120	11,953	15,561	13,975	14,034	12,647	10,109
기타(유통,관광)	5,222	9,225	11,350	12,814	12,200	13,848	12,832	10,702
②국가정책연계	21,533	26,524	28,591	39,376	36,791	45,881	48,965	49,645
	33%	31%	32%	29%	29%	37%	39%	40%
임대사업	21,533	26,524	28,591	36,792	34,207	35,873	36,858	37,351
보금자리	-	-	-	2,584	2,584	10,008	12,107	12,294

2. 경기도시공사: 부채 8.4조원, 부채비율 321%('12년)

- (현황) 부채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으나('12년 321%), '06년 이후 지속 경영수익 발생하는 등('04년 이후 누적 경영이익 9,150억원) 대부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중임
 - 최근 다산 보금자리, 화성동탄(2), 광고택지, 위례 등 대규모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여 공사채 발행규모 확대됨
 -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택지개발사업을 주로 추진하였으나, 최근 사업구조가 변경되어 국가정책연계 사업인 보금자리사업을 중점 추진

<연도별 재무현황(경기도시공사)>

(단위: 억원)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상
부채	39,425	47,018	52,644	67,159	75,271	70,911	84,357	81,402
부채비율	550%	493%	456%	393%	398%	310%	321%	315%
당기순이익	436	862	139	754	1,823	1,776	3,360	-5

- (전망) 다산 보금자리 사업 보상추진으로 대규모 자금이 '14년 일시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후 분량이 진행되면서 해결될 예정

<연도별 사업유형별 금융부채 현황(경기도시공사)>

(단위: 억원)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상
금융부채(①+②)	34,885	34,024	32,849	33,247	39,694	33,740	44,143	44,397
①지역개발	33,233	32,230	31,514	32,023	37,923	30,617	29,130	28,310
	95%	95%	96%	96%	96%	91%	66%	64%
택지개발	28,353	28,392	30,279	30,662	33,037	23,019	21,495	20,481
산업단지	4,839	3,838	1,235	1,361	4,886	7,598	7,635	7,829
기타(유통,관광)	41	-	-	-	-	-	-	-
②국가정책연계	1,652	1,794	1,335	1,224	1,771	3,123	15,013	16,087
	5%	5%	4%	4%	4%	9%	34%	36%
임대사업	1,652	1,794	1,335	1,224	1,771	1,962	2,269	2,245
보금자리	-	-	-	-	-	1,161	12,744	13,842

3. 인천도시공사: 부채 7.9조원, 부채비율 356%('12년)

- (현황) 대규모 사업이 동시 진행되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및 외부요인*으로 사업 정상진행이 어렵거나 미분양이 장기화되어 부채문제가 장기화됨

* 검단신도시: 사업비 투입 2조, LH와 55 공동사업이나 LH의 사업중단으로 진척이 어려움

- '06년 지역개발사업 비중이 95%였으나, 최근에는 임대 및 혁신도시 사업추진으로 국가연계사업 비중이 10%까지 증가

<연도별 재무현황(인천도시공사)>

(단위: 억원)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상
부채	11,867	21,672	29,378	44,609	56,352	73,645	79,272	78,431
부채비율	339%	171%	246%	241%	290%	326%	356%	335%
당기순이익	165	471	345	360	196	-361	-333	-381

- (문제점) 부채문제가 장기화되어 이자비용 만큼의 영업이익도 창출하지 못해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음
- (전망) 공동사업자와 협의하여 사업진척을 위해 노력하고, 다양한 분양촉진책 통한 수입 창출, 인천시 현물출자 자산을 매각하여 부채 상환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부채문제 해결할 예정임

<연도별 사업유형별 금융부채 현황(인천도시공사)>

(단위: 억원)

구분(단위:억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상
금융부채(①+②)	4,013	14,741	19,465	35,104	48,448	64,146	65,747	63,894
①지역개발	3,824	14,364	18,984	34,334	47,475	59,301	59,896	57,762
	95%	97%	98%	98%	98%	92%	91%	90%
도시개발	-	-	-	6,415	6,504	8,306	9,044	7,293
택지개발	3,824	14,364	17,547	18,987	32,193	39,477	40,775	39,711
산업단지	-	-	1,126	8,368	8,278	7,905	7,001	7,507
기타(유통,관광)	-	-	311	564	500	3,613	3,076	3,251
②국가정책연계	189	377	481	770	973	4,845	5,851	6,132
	5%	3%	2%	2%	2%	8%	9%	10%
임대사업	189	377	481	770	973	973	1,124	1,390
보금자리	-	-	-	-	-	3,872	4,727	4,742

4. 부산도시공사: 부채 2.5조원, 부채비율 253%('12년)

- (현황) 부채비율이 200%대로 안정적이고, '09년 이후 지속 경영이익 달성하였으며('06년 이후 누적경영이익 3,164억원), 매년 만기도래하는 부채도 차환없이 분양이익으로 정상적으로 상환중
- '06년 지역개발사업 비중이 96%였으나, 최근에는 임대 및 혁신도시 사업추진으로 국가연계사업 비중이 15%까지 증가

<연도별 재무현황(부산도시공사)>

(단위: 억원)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상
부채	6,331	10,412	17,869	21,671	24,777	26,298	24,708	25,288
부채비율	93%	155%	257%	284%	307%	289%	253%	249%
당기순이익	37	102	140	283	366	1,146	691	399

- (전망)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완료 중이며, 최근 언론에서 문제제기된 동부산관광단지 관련 금융부채도 자체자금으로 상환할 예정

<연도별 사업유형별 금융부채 현황(부산도시공사)>

(단위: 억원)

구분(단위:억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상
금융부채(①+②)	4,008	7,093	13,229	15,296	20,371	21,509	20,540	20,962
①지역개발	3,828	6,748	12,673	14,451	19,301	18,441	17,371	17,751
	96%	95%	96%	94%	95%	86%	85%	85%
도시개발	937	2,337	6,400	6,600	5,100	5,100	5,100	5,100
산업단지	2,000	3,500	4,400	5,900	11,400	11,400	10,400	10,100
기타(유통,관광)	891	911	1,873	1,951	2,801	1,941	1,871	2,551
②국가정책연계	180	345	556	845	1,070	3,068	3,169	3,211
	4%	5%	4%	6%	5%	14%	15%	15%
임대사업	180	345	556	845	1,070	968	1,069	1,111
혁신도시	-	-	-	-	-	2,100	2,100	2,100

5. 강원도개발공사: 부채 1.2조원, 부채비율 338%('12년)

- (현황) 2018동계올림픽을 위해 알펜시아사업에 투입한 1조 5,145억원 중 1조 189억원을 차입했으나 분양저조로 차입금 상환이 어려움
 - 알펜시아 운영수입은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면 손익분기점까지 도달, 차입금 관련한 이자비용으로 기관 경영손실 발생

<연도별 재무현황(강원도개발공사)>

(단위: 억원)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상
부채	2,837	5,333	7,746	10,488	14,033	12,985	12,498	12,616
부채비율	74%	125%	239%	313%	341%	344%	338%	333%
당기순이익	41	8	34	△224	△519	△461	△304	△152

- (문제점) 국가 신인도와 연계된 동계올림픽 행사개최와 관련된 부채로 의사결정에 한계
 - 강원도가 강원도개발공사 경영정상화를 위해 '11년 이후 현금출자 및 보유주식 매각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재무개선 효과도 크지 않아 채무감축에 한계있음
 - * 강원도 출자 800억원(실적 300억), 강원개발공사 보유 강원랜드 주식 매각 700억원(실적 300억원)
- (전망) 알펜시아 리조트 및 관련 스포츠시설 민간 및 국가로 매각 진행하여 부채 해결을 위해 노력중

<연도별 사업유형별 금융부채 현황(강원도개발공사)>

(단위: 억원)

구분(단위:억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상
금융부채(①+②)	1,476	3,526	6,362	8,099	11,515	9,030	8,408	10,370
①지역개발	1,380	3,430	6,266	8,003	11,289	8,804	8,182	10,129
	93%	97%	98%	99%	98%	97%	97%	98%
산업단지	150	150	150	670	1,040	1,025	790	790
기타(유통,관광)	1,230	3,280	6,116	7,333	10,249	7,779	7,392	9,339
②국가정책연계	96	96	96	96	226	226	226	241
	7%	3%	2%	1%	2%	3%	3%	2%
임대사업	96	96	96	96	226	226	226	241